

2012. NTTP교과연수년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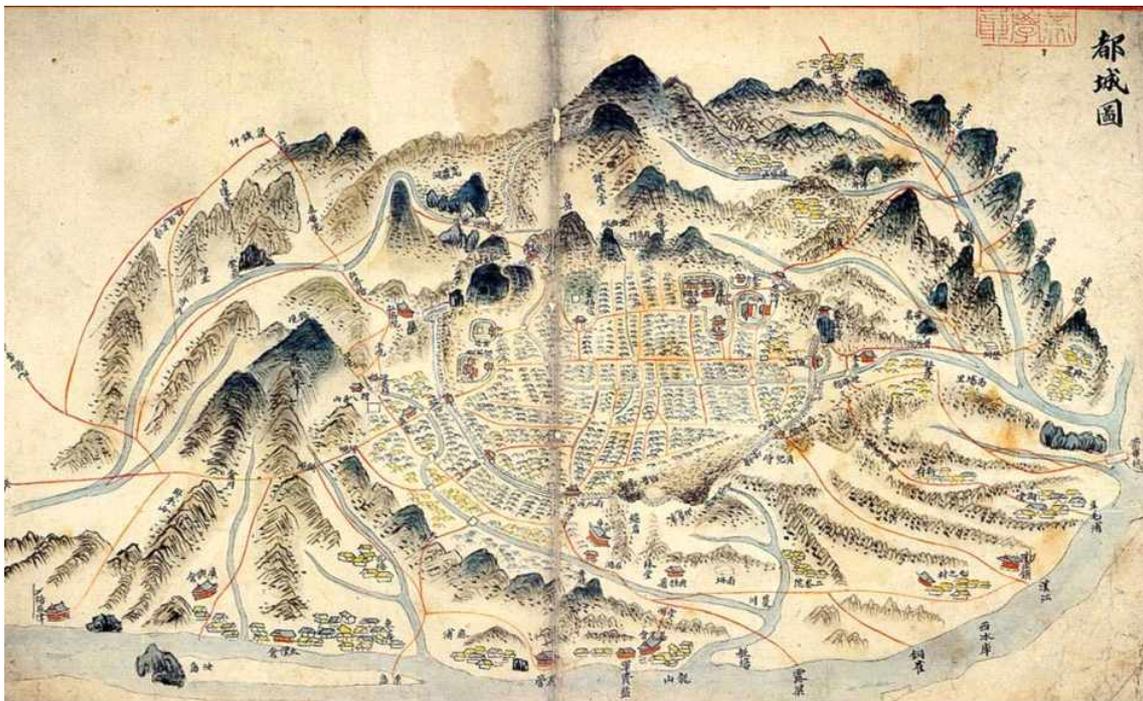
서울의 성곽에 깃든 이야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문화유산 교육연구회

서울의 성곽에 잇든 이야기



19세기 동국여도 가운데 도성도 부분

제1부 성곽에 대해 알아보기



사 례

I. 성곽 이야기

1. 성곽이란?	9
2. 성곽을 만든 이유	10
3. 성곽의 분류와 구조	10
가. 성곽의 분류	10
나. 성곽의 구조	16

II. 성곽의 역사

1. 성곽의 기원	20
가. 선사시대의 성곽	20
나. 초기철기시대의 성곽	20
2. 고대 삼국의 성곽	21
가. 고구려의 성곽	21
나. 백제의 성곽	22
다. 신라의 성곽	23
3. 고려의 성곽	23
4. 조선의 성곽	24

III. 성곽 축조와 관련한 과학기술

1. 성곽의 축조과정	26
가. 기초다지기	26
나. 토성의 축조방법	26
다. 돌로 성벽 쌓기	29

제2부 조선의 성곽과 이야기

I. 한양 도성의 축조과정	33
1. 축성시기	33
2. 4대문	36
가. 승례문	36
나. 흥인문	36
다. 돈의문	37
라. 숙정문	37
3. 4소문	38
가. 창의문	38
나. 흥화문	38
다. 광희문	39
라. 소덕문	39
마. 남소문	40
바. 수문	40
사. 시기별 축조기법	41
4. 조선시대 방어 체계	42
가. 수도방어체제의 성립	42
나. 양난 이후 방위체계의 정비	43
다. 조선후기 방어 체계	44
II.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	47
1. 광희문	47
2. 동대문	48
3. 오간수문	49
4. 낙산	50
5. 혜화문	51
6. 학교이야기	53
7. 성균관 둘러보기	56

※ 참고문헌

한양의 성곽 답사 일정 및 정보

1. 안내 말씀. 성곽 답사의 의의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많은 수의 다양한 성곽이 존재한다. 일제 강점기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파악된 성곽의 수가 1,800여 곳에 이른다. 세종대의 양성지(1415-1482)는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말했으니 정말 많았다. 고구려의 국내성, 백제의 풍납토성이나 부여 나성, 고려의 나성, 그리고 한양의 성곽처럼 왕조 운영의 핵심을 보호하는 도성과 관련한 성곽, 방어적인 목적으로 중요한 길목의 험한 산에 만들어진 산성, 지방행정 통치 및 비상시의 피난처로 기능한 읍성 등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곽이 축조되었다.

특히 도성은 한 국가의 머리이며 심장이었다. 한반도에 세워진 많은 왕조들은 국가 건설 단계에서 가장 먼저 도성의 축조에 힘을 기울였다.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왕조의 수도를 정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을 축조할 때는 당시의 토목 건축기술을 총동원하여 견고하게 지었으며, 성곽이 지니는 방어의 기능과 함께 도성의 다양한 기능이 담겨져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도 힘을 기울였다.

축조 기술과 기능적 고려만이 도성에 담긴 것은 아니다. 옛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구체적인 건축물 속에 구현되도록 힘을 기울였다. 도성은 기술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중심사상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현된 구조물이다. 한양 도성이 가진 아름다움은 현대 건축이 갖는 디자인의 요소 즉, 기능과 형태와 더불어 건축물에 담긴 중심사상이 더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당대의 과학기술은 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답한다. 당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성곽의 축조에 최고의 기술이 투여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한양 성곽에 사용된 과학기술 원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과학은 시간을 거슬러 이곳에 살았던 조선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를 만나게 해준다. 소중한 나라와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곽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경치와 옛사람들의 창의력과 기술력에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한양 성곽을 모두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성곽 답사를 통해서 성곽이 지닌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한양 성곽 답사 정보

가.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09:30~ 16:00
- ▶ 장소 : 서울 한양 성곽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와 종로구)

나. 참가 교사 명단 :

다. 답사 안내 교사 : 신대광(안산 원일중학교 역사교사, 수석교사)
허승권(비봉 고등학교 역사교사)

라. 답사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 09:30	동대입구역(3호선 5번 출구) 집합	인원 및 준비물 점검(지도교사) 서로 인사나누기
09:30 ~ 10:30	한양 성곽의 개요 장충동 ~ 광희문 성곽	
10:30 ~ 11:00	동대문, 동대문역사관 외	
11:00 ~ 12:00	낙산 성곽	
12:10 ~ 13:00	중식 (대학로 맛집으로 예약)	
13:00 ~ 14:00	성균관 답사	
14:00 ~ 14:30	휴식	
14:30 ~ 15:30	와룡공원 ~ 혜화문	
15:30 ~ 16:00	답사 정리 한성대입구역(4호선)에서 해산	인원 확인 헤어지는 인사 또는 뒷풀이(?)



1부. 성곽에 대해 알아보기

I

성곽이야기

1. 성곽이란?

가. 성곽(城郭)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곽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흙이나 돌 또는 벽돌 등의 재료를 이용해 높이 쌓아 올린 담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고고학과 역사학에서의 성곽(城郭)이란 “군사적, 행정적인 집단의 공동목적을 갖고 거주주체의 일정한 공동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그 구조물이 연결성을 갖는 전통건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은 사회유지의 필수조건이므로 강력한 화력을 지닌 대포와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성곽이 필요했다.

성곽(城郭)은 城과 郭의 합성어로서 안쪽[內]을 城, 바깥쪽[外]을 郭이라고 하며 郭은 방어시설이 일정한 지역을 둘러싼 구조와 형태를 뜻하는 말이다. 나라를 뜻하는 國(國)에도 성곽이 담겨있다. ‘國’을 풀어쓰면 口과 或으로 나뉘고 或은 다시 戈과 口와 一로 나뉠수 있다. 즉 그 의미는 나라 사방(口)의 경계를 사람(口)이 창(戈), 즉 무기로서 지키며 여기에 다시 토지를 상징하는 一을 더하여 國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무장[戈]을 구비한 이중성벽(口와 口)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후한대의 문헌인 『吳越春秋』에는 夏禹의 아버지 鯀(鯀)이 군왕을 보위하는 城과 백성을 보호하는 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곽의 시초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성곽이라는 말은 내성과 외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 구조의 취락유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

역사기록상 가장 자주 먼저 나타나는 단어는 성(城)이다. 우리나라 지명에는 성으로 끝나는 지명이 많은데 이는 현존하는 성이 있거나 과거에 성이 있었던 지명이다. 현재 지정된 사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성곽이다. 삼국시대이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곽을 많이 축조하고 축조기술도 뛰어나서 성곽의 나라라고 불렸다. 거꾸로 말하면 성곽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중국의 한 성도 아니고 일본의 영토나 다른 국가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를 유지해 온 것은 성곽을 이용하는 성곽전술(城郭戰術)이 발달되어 외적을 물리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박순발, “동아시아 고대 도성 비교를 위한 몇 가지 관점”, 『韓國의 都城』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2010.

나. 성곽 유적의 의미

성곽의 형태와 규모를 통해 당시 그 지역을 둘러싼 세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축조하는 데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소규모의 성과 최고수준의 축성기술이 사용된 대규모의 성을 비교하면 성을 쌓은 주체 세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성을 방어하는 세력이 있으면, 공격하는 세력도 있다. 대규모의 철벽같은 성의 존재는 그 지역을 위협하는 세력의 규모가 대단히 컸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곽은 성곽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쳤던 정치세력의 발전 수준을 알려주고 당시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유산이다.

2. 성곽을 만든 이유

나라를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일이다. 성을 쌓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만일 쳐들어오더라도 쉽게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은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거꾸로 성 안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한 기능도 있었다.

앞서 성곽(城郭)의 개념을 “군사적 행정적인 집단의 공동 목적을 갖고 거주주체의 일정한 공동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그 구조물이 연결성을 갖는 전통 건조물”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군사적이란 뜻은 성곽의 본래 목적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성이 울타리나 목장과 다른 부분이다. 행정적이란 성안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한나라의 수도인 도성의 축조는 외적의 방어와 동시에 왕의 거주공간인 궁과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울러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 거주주체의 일정한 공동활동의 공간이란 성벽을 두른 성곽의 내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즉, 수용 공간을 보유하여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다.

3. 성곽의 분류와 구조

가. 성곽의 분류

(1) 성의 축성 재료에 따른 분류

성을 쌓는 주된 재료에 따라 목책성(나무), 토성(흙), 석성(돌), 토석혼축성(흙과 돌), 전축성(벽돌), 전석혼축성(돌과 벽돌) 등으로 나눈다.

① 목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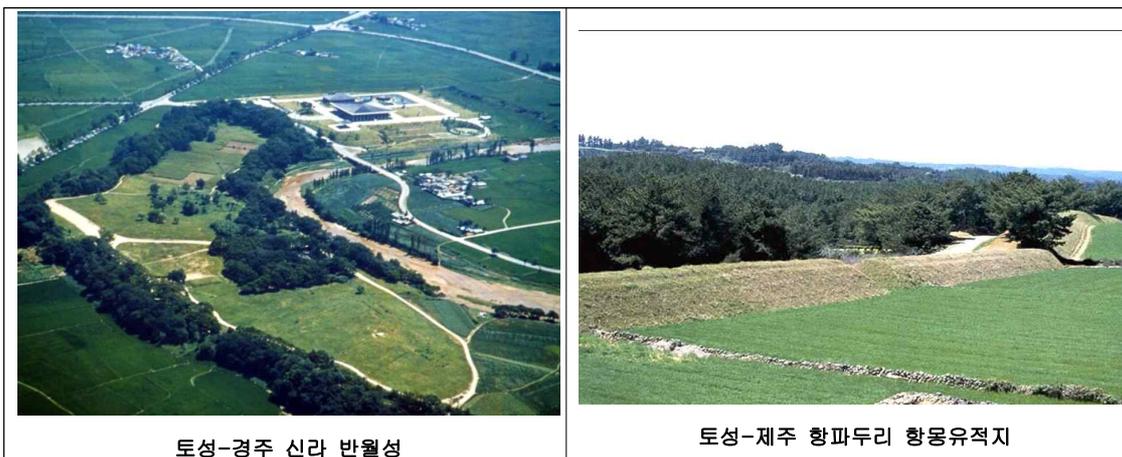
목책을 둘러 방어 시설을 한 것으로 성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부여와 진한에서 목책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作城柵”, “有城柵”)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태조왕 16년(98) 두만강 연안에 책성(柵城)을 쌓았다는 기록과 신라 일성왕 4년(137) 강릉 부근에 오책(五柵)을 설치한 기록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목책을 방어시설로 꾸준히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토성과 석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도 목책은 꾸준히 사용되었다. 토성의 앞에 이중으로 방벽을 하는 경우에 목책이 사용되었고, 긴급히 빠른 시간에 방어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도 목책을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목책은 활용되었는데 임진왜란의 승전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은 이중으로 된 책성이었다.



② 토성(土城)

토성은 석성과 함께 우리 나라 성곽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곽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목책이 이어 토성의 축조가 이루어지고 이어 석성이 축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토성은 석성이 축조된 이후에도 석재의 운반이 어려운 지형에서는 축조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고대 삼국시대(고구려 평양성, 백제 풍납토성, 몽촌토성, 신라 반월성 등)부터 고려 말까지 널리 만들어졌으며, 조선 건국 초기에 한양을 정하고 성곽을 쌓을 때에도 처음에는 토성이었다. 토성은 후대에 석축으로 다시 쌓는 경우가 많다.



③ 석성

석성은 돌을 쌓아 성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성곽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

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꾸준히 축조가 이루어졌다. 석축의 경우 처음부터 석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산성이나 한양성곽 등 토성을 개축한 경우도 있다.



④ 토석혼축성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하여 성벽을 만든 성곽을 토석혼축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성의 경우는 대부분 산의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바깥쪽에는 돌을 쌓은 석축을 하고, 안쪽에는 흙으로 쌓은 토축인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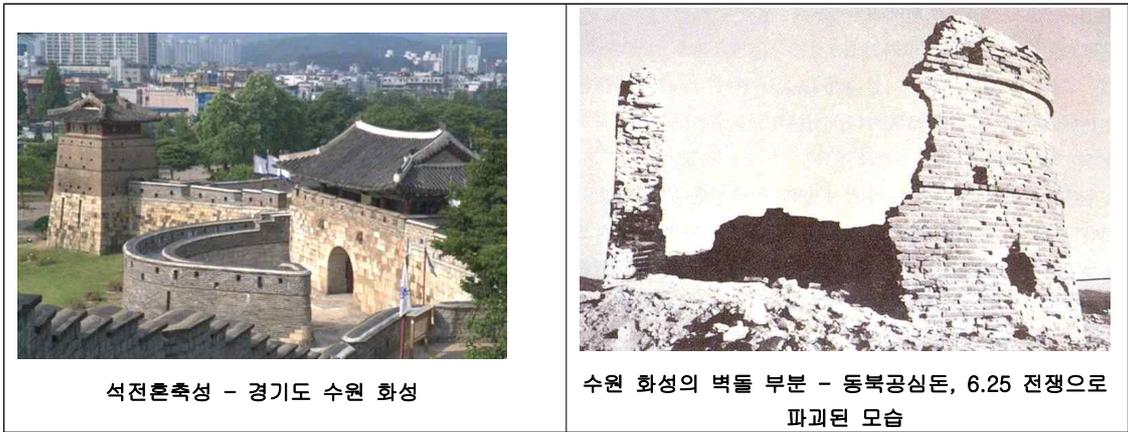
⑤ 전축성

전축성이란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축성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벽돌로만 지은 성은 없다. 임진왜란 이후 기존 석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벽돌 사용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숙종 때 강화산성,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성곽의 일부를 벽돌로 축조한 경우가 있다.



⑥ 석전혼축성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한 성곽을 석전혼축성이라고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전축성은 없고 대부분 석성에 벽돌을 일부 사용한 석전혼축성이다.



(2) 성의 거주 주체에 따른 분류

성에 거주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왕이 거주하는 궁성, 도성과 지방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성, 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행재성 등으로 분류한다.

① 도성

도성은 한 국가의 수도에 해당한다. 나라를 세우면 가장 먼저 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도성을 축조한다. 도성은 왕이 평상시에 거주하는 행정의 중심지에 궁성을 조성하고 그 외곽에 수도를 보호하는 외곽인 나성(羅城)을 갖춘 형태가 일반적이다.

② 궁성

왕이 거처하는 곳에 궁과 관청건물들을 성벽이나 담장으로 둘러싸는데 이를 통틀어 궁성이라 한다. 도성과 궁성을 분리하는 이유는 궁성이 반드시 도성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③ 읍성

읍성은 지방의 군·현 주민의 보호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군사적, 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하는 성이다. 읍성의 시초는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읍성을 축조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많이 축조되었다. 읍성의 경우 평지에 쌓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배후의 산등성이를 포용하여 평지와 산기슭을 함께 감싸면서 축조하였다. 그런 이유로 평산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는 읍성이 179개소가 등장할 정도로 전국에 많이 축성되었다. .

④ 행재성

행재성은 도성처럼 왕이 상주하지는 않으나 국방상, 행정상 중요한 지역에 임시로 가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성이다. 수원의 화성이 가장 대표적인 행재성이다. 조선시대의 궁은 크게 법궁, 이궁 양궐 체제였고 왕이나 왕세자가 비를 맞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별궁, 왕이 즉위하기 전에 살던 잠저, 왕이 궁을 벗어나 행사에 참석할 때 임시로 머문 행궁 등이 있었다. 법궁은 임금이 주로 정사를 보며 생활하는 궁이며, 화재나 변란 등으로 법궁을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은 궁을 이궁이라고 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경복궁이 법궁이었고,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이 이궁이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에 타고나서 창덕궁, 창경궁이 법궁이고 경희궁이 이궁이었다. 대원군의 집권 후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법궁으로 삼았다가 을미사변을 겪고 대한제국 이후에는 경운궁이 법궁의 역할을 하였다.

(3) 지형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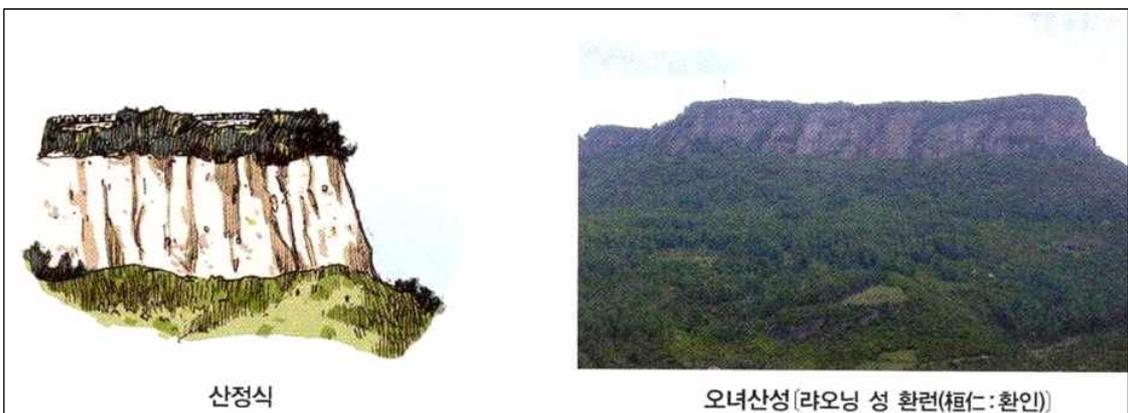
①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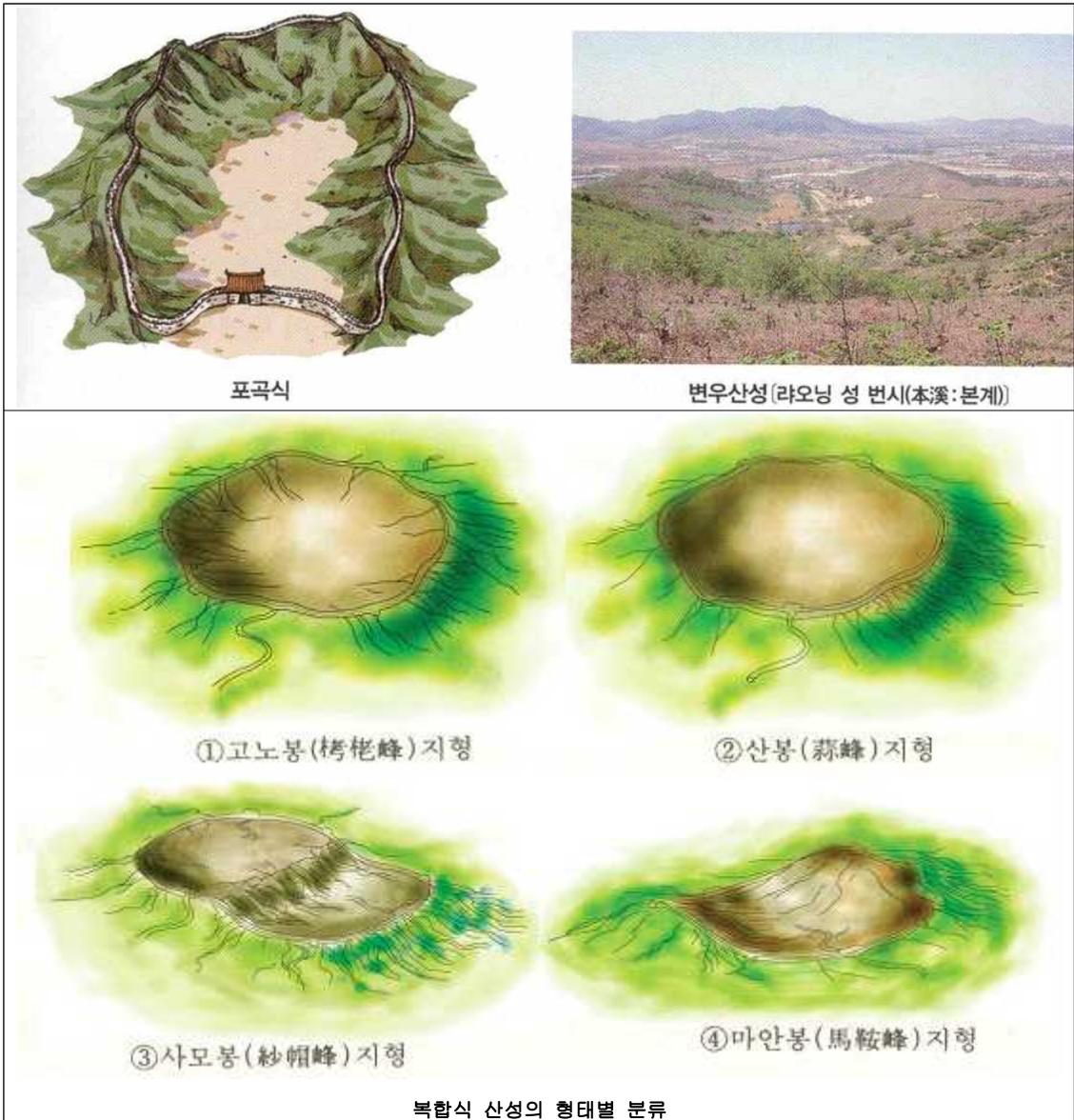
초등학교에서 배우듯이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이다. 험한 산세에 의지하여 방어를 구축하는 것은 이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산에 위치한 산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가 안시성에서 참패를 하고 돌아갔다. 그후 황제가 분을 못 이겨 다시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하자 신하들이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여금 침략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가 고구려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성은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둘러쌓은 테뢰식[山頂式]과 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아 하나 이상의 계곡을 끼고 만든 포곡식 포곡식(包谷式), 그리고 테뢰식과 포곡식을 결합한 복합식 산성 등이 있다.

테뢰식은 마치 머리띠를 두른 것 같다고 붙인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단기 전투나 농성(籠城)에 대비한 성곽이다. 포곡식(包谷式)은 테뢰식보다 규모가 크며, 외부에 대한 노출도 적다. 성곽 내에 물과 식량이 풍부하고, 활동공간도 넓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장기간의 전투를 할 때 편리하다. 산성은 테뢰식 산성에서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 포곡식 산성으로 축조되었거나, 테뢰식 산성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포곡한 경우도 있다.

복합식 산성은 성곽 내에 산꼭대기와 계곡을 공유하고 있는 형식으로 일부는 테뢰식이고 일부는 포곡식 산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합형식으로 규모가 큰 산성이거나 도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식 산성은 고노봉, 산봉, 사모봉, 마안봉 등의 형태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고노봉 지형을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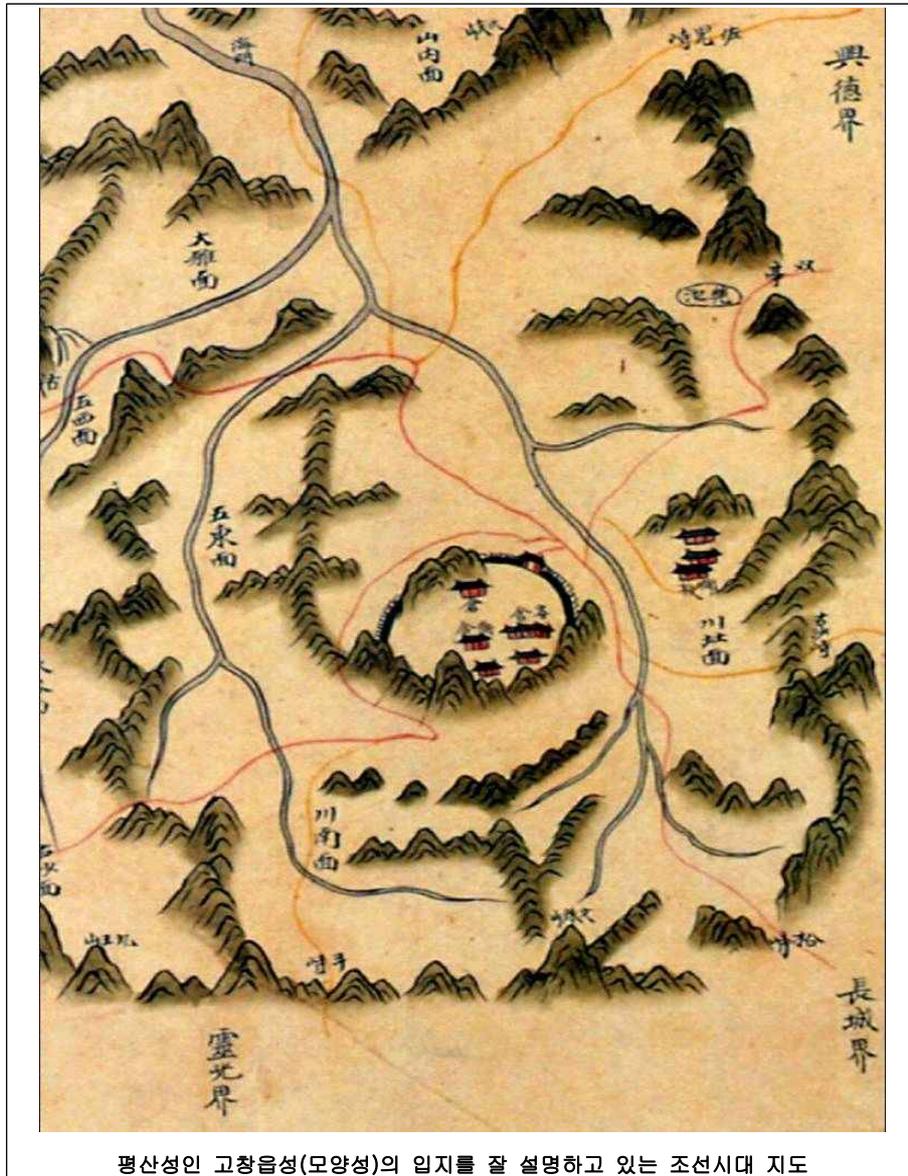


② 평지성

평지성은 평지에 축성한 성곽인데, 산성에 비해 그 수는 많지 않다. 넓고 평평한 지역에 사방이 펼쳐진 곳에 축성되기 때문에 산성에 비해 방어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벽을 높고 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성곽을 쌓을 때 사람과 물자가 많이 소요된다. 지리적 방어력의 이점이 부족한 반면 기타 공간활용, 관측, 물의 확보 등에서 유리하다. 평면이 방형(사각형)인 경우가 많고 벽 외부에는 구덩이를 둘러 파고 물을 넣은 해자(核字)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다.

③ 평산성

평산성은 평지와 구릉지를 각기 일부씩 포함하고 있는 성곽이다. 대부분 읍성들이 이 형태를 따르고 있다. 고창읍성(모양성)과 수원의 화성도 이 부류에 속한다.



평산성인 고창읍성(모양성)의 입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 지도

성벽 축조에 유리한 지형을 따라 축조하다보니 그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깝다. 이밖에 성의 목적에 따라 행정적인 성과 군사적인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성곽의 구조

우리나라의 성곽은 특별한 시설을 갖추기보다는 지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성벽과, 성벽에 설치되는 치성이나 포루, 그리고 성문 외에 주변을 감시하는 망루나 군사 지휘소인 장대를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특히 험준한 산에 조성되는 산성에서는 지형의 이점을 살리는데 힘을 기울인 탓으로 건축적인 요소는 많지 않았다. 반면 읍성에서는 성문을 비롯해서 치성이나 옹성 등 평지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만들어졌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성곽에서는 이러한 방어 시설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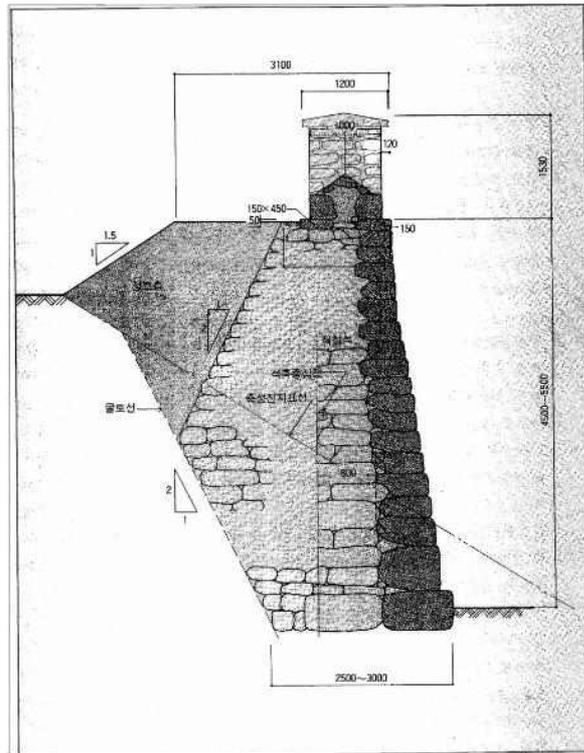
성곽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 세부 구조 설명 그림

(1) 성벽

성벽의 형태는 일부 평지에 쌓는 성곽에서는 네모난 형태도 있지만 산이나 경사지를 이용해서 축조하는 대부분의 성곽에서는 지형 조건에 따른 불규칙한 형태를 취한다. 또 경사지가 있으므로 성벽 밖에 호를 파는 경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성벽 자체는 평지에서는 안팎에 모두 성벽을 쌓는 소위 협축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경사지의 지세를 살려 바깥쪽에만 성벽을 쌓는 내탁 방식을 취한다. 성벽의 높이도 5m 전후가 일반적이어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처럼 호를 파지 않고 성벽도 높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산세를 이용해서 성곽을 쌓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세를 살린 축성술 덕분에 한국의 성곽은 아름다운 자연 지세에 조화된 고유한 형태를 간직하게 된다.

성벽의 재료는 흙과 돌 그리고 드물게 벽돌을 이용하였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돌이었다. 단단한 화강석이 풍부한 자연 조건 덕분에 일찍부터 돌을 다듬는 기술이 발달하였는데 이미 4, 5세기경에는 성벽 축조 기술이 고유한 기법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벽은 하부에 큰 장대석으로 힘을 지탱하도록 하고 그 위에는 줄을 가지런히 맞추면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데 따라서 조금씩 안으로 들여쌓는 기법이 자리잡았다. 이런 축성 기법은 삼국시대 산성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며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성벽을 쌓는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 초기에 서울 성곽을 쌓은 것을 보면 하부에는 길이 2-3m되는 거대한 돌을 두 세단 놓고 그 위에는 한 사람이 쉽게 들 정도의 작은 돌을 줄 맞추어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농한기를 택해 40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제약 조건 아래서 우선 큰 돌을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운반해서 하부를 다지고 상부는 각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17세기 말 이후에는 축성술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겨서 이 때부터는 돌을 일정한 크기로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서 줄을 맞추어 쌓다가 군데군데 서로 이가 물리도록 하는 기법이 보인다.



성벽의 단면(서울 성곽)

이것은 석재의 가공 기법과 축조 기술에 한 단계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18세기말에 축조한 수원 화성의 성벽 역시 이런 기법으로 조성되어 있다.

벽돌로 성벽을 쌓는 방식은 고려시대 이전부터도 반도 북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의주나 함흥의 읍성 성벽을 벽돌로 쌓기도 하였다. 그러나 벽돌은 반도 중부 아래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토질의 문제와 새로운 재료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었다. 또한 기술자들에게 익숙해 있는 화강석이 쉽게 구해질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재료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2) 성벽의 방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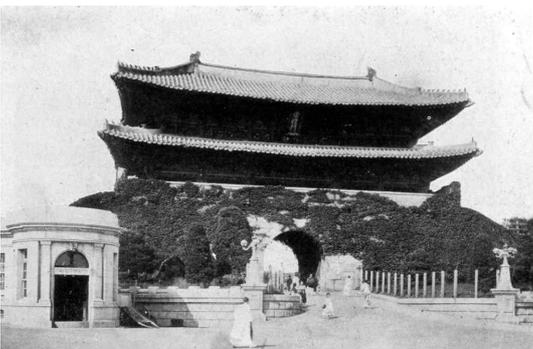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서 성을 쌓는 산성에서는 따로 방어시설을 가하지 않고도 충분한 방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성에는 따로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거기 비해서 읍성에서는 치성을 비롯해서 포루나 망루 등을 설치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치성은 성벽을 돌출시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선후기 읍성에서 흔히 발견되며 포루는 이 치성에 대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으로 역시 조선후기에 종종 설치하였다. 이밖에 적을 감시하는 각종 망루나 돈대도 조선후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3) 성문

성문은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고 가장 중요한 방어 위치가 되므로 일찍부터 그 형태에 여러 가지 고안이 가미되었다. 일반적으로 성문은 석축 앞뒤에 홍예를 쌓아 출입구를 만들고 홍예 내부는 수직으로 측벽을 쌓은 다음 목재로 천장을 가설하고 그 위에는 목조의 누각을 올려 출입자를 감시하고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우므로 출입구를 이중으로 감싸는 옹성을 두기도 하며 성문 주변에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적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문짝에는 쇠붙이 판을 대서 문짝이 불에 타는 것을 방지한다.

성문 위의 누각은 평상시에는 성곽의 위용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형태나 외관을 장중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의 남대문이나 동대문은 지붕을 우진각으로 해서 일반 팔작지붕보다 한 단계 높은 격식을 나타냈으며, 평양의 보통문이나 대동문, 전주 풍남문, 의주 남문 등은 도성과 같이 성문 지붕을 중층으로 해서 위용을 과시하였다. 수원 화성의 남문과 북문은 지방 도시로는 예외적으로 우진각 지붕에 중층의 지붕을 설치했다.

현존하는 성문은 대개 석성의 문으로 보통 동서남북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문을 만들어 출입을 편하게 하였다. 이런 일반적인 정문이외에 몰래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암문(暗門)과 성내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수문(水門) 등이 있다.

	
<p>홍예식 성문(아치형으로 성문이 크고 성문 위의 누각도 크다) 송례문 - 조선고적도보</p>	<p>평거식 성문(성문 위쪽이 평평한 돌로 마무리, 성문이 작고 위의 누각도 작다) 강화산성 북문 진승루</p>
	
<p>개거식(성문위쪽이 나무로 만들어져 개방된 문), 고창읍성 북문 공북루</p>	<p>현문식(성문이 일정높이부터 시작해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 일명 다락식), 은달산성</p>

II

성곽의 역사

1. 성곽의 기원

가. 선사시대의 성곽

우리나라 성곽의 시초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원전부터 비롯되었음이 확실하다. 초기 성곽의 기원은 B.C 1~2세기 경 높은 지대에 집단 거주하던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독을 쌓거나 구덩이(환호;環壕)를 파놓으면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활공간을 빙둘러서 쌓은 독이나 주변을 파서 만든 구덩이 등의 원시적인 방वेश설은 전투의 규모가 작은 싸움에서는 지키는 쪽에 큰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선사시대의 환호마을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부여의 송국리 유적이다. 마을을 둘러싸고 깊게 판 환호와 환호를 따라 만든 목책은 당시 사회가 평등한 공동체사회를 지나 계급사회로의 발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부여 송국리 유적 복원 영상, KBS 역사스페셜

나. 초기 철기시대의 성곽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일국 단위의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이제 나라와 나라 단위의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지면서부터 성곽은 나무를 이용한 목책성과 토성, 산성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삼한시

대에는 성의 축조와 운영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였으며 “國”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왕검성의 존재를 언급한 사기(史記) 조선전의 기록이다. 문헌상 최초이며 더욱이 수개월동안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규모가 크고 발달된 성곽이었음을 짐작케한다. 또한 위만이 조선에 와서 관리를 두고 장(障)을 쌓았다는 것을 보면 위만 고조선부터는 성곽이 존재했음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2. 고대 삼국의 성곽

국가 발전단계에서 삼국시대는 고대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이뤄진 시대이다. 이때 고대국가의 특징으로 강력한 왕권과 정복전쟁을 통한 영역의 확대를 꼽는다. 이렇듯 국가의 발전을 정복전쟁을 통한 영역의 확보에 두었던 삼국시대에는 삼국간의 전쟁, 중국 등과의 대외항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480여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방어를 위한 성의 축조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절박한 공사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14, 신라 30, 백제 40차례의 축성기사가 나올 정도다.

삼국의 도성은 내외 이중의 성곽을 쌓고 또 도성 주변에 산성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었다. 집안의 국내성이나 평양의 대성산성 그리고 여러 겹의 성벽을 갖추었던 장안성이 고구려 성곽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공주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과 부여 나성 그리고 부여 외곽의 청산성, 청마산성 등이 백제 성곽의 좋은 예이다. 신라의 경주는 성곽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경주 외곽의 세 곳에 산성을 두어 산성의 전통을 잇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 고구려의 성곽

고구려는 졸본을 도읍으로 건국했다가 국내성(중국 지린성 지안)으로 옮겼다. 이후 장수왕 대(427년) 수도를 남쪽의 평양성으로 옮겼다. 586년에는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의 모란봉 남쪽에 장안성(평양성)을 새로 쌓고 다시 수도를 그곳으로 옮겼다.

고구려의 평지성은 국내성과 안학궁성, 천호동 토성 등 몇 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산 위에 세워진 산성이었다. 고구려의 산성들은 대개 산세가 좋고 성 안에 물이 풍부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오래 지낼 수 있는 고로봉식 산성이었다. ‘고로봉’형은 고리짜같이 성의 4면의 주위가 높은 산 등으로 둘러 막히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말한다.

고로봉식의 장점은 첫째, 산 능선 또는 절벽을 따라 성벽을 쌓기에 적의 침입은 어렵고 막아내기는 쉽다. 둘째 산의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겹성을 쌓거나 해자를 팔 필요가 없다. 셋째, 성안이 우묵하여 적들이 우리 모습을 볼 수 없다. 넷째, 골짜

기와 넓은 공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풍부한 물이 있어 오래도록 농성해도 불편이 없다.

나. 백제의 성곽

백제의 처음 수도였던 위례성은 주위에는 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뜰이 있다. 그 다음 수도였던 웅진과 사비 역시 서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금강 기슭의 부소산을 뒤에 두고 남쪽에 넓은 벌판이 있다. 넓은 곳에 궁성을 마련하고 뒤의 산을 이용하여 산성을 쌓았다.

풍납토성은 성벽의 규모와 성 내에서 발굴된 다양한 건물지와 유물을 바탕으로 한성백제의 도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풍납토성은 한강변에 있는 평평한 지형에 쌓은 평지성으로 전 구간을 인위적인 성토를 통해 구축하였다. 현재 동벽 1.5km, 남벽 200m, 북벽 300m로 둘레가 약 2.7km 정도 남아있지만 선문대학교 이형구 교수가 측량한 결과 본래 둘레가 약 3.5km, 밑변이 30~40m, 높이가 15m, 넓이 약 86만 m²로 현존하는 토성 중 최대규모이다. 웅장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풍납토성의 축조 방식은 바닥의 흙을 으로 외벽을 깎아 급경사로 만드는 삭토법을 이용하고, 지형이 낮은 곳은 구획을 나누어 흙을 겹겹이 쌓아 다지는 고도의 기술인 판축기법으로 성벽을 쌓았다.

풍납토성의 남쪽으로 총길이 2,258m의 몽촌토성이 있다. 백제의 도성체제가 평시에는 풍납토성에서 생활하다가 전시에는 몽촌토성으로 옮겨서 농성을 하는 북성과 남성의 양성체제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세기까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던 백제는 5세기 들어서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밀려 개로왕이 전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마침내 한강 유역의 한성을 빼앗기고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475년) 공산성은 웅진시기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데 성 둘레가 약 2,580m로 대부분이 석성이고 일부가 토성이다. 그러나 현재의 석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새로 쌓은 것으로 보이며, 동문지 밖의 토성이 735m 정도 남아있는데 이곳이 백제시대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웅진시대의 백제는 성곽위치로 보아 공산성을 중심으로 공주관내에 웅진동산성, 월성산성 등 10여 개의 성이 궁성을 보호하는 나성(羅城)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령왕을 거쳐 성왕대에 이르러 세력을 정비한 백제는 성왕 대에 대외 진출이 쉬운 부여의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고(538년)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후 부흥의지를 불태운다. 사비의 도성은 웅진에 있을 때부터 계획을 하고 궁성과 나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나성은 토축으로 되어 있어 형태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으나 부소산성(扶蘇山城) 동문지(東門址), 즉 현재의 영일루(迎日樓) 앞에서 시작하여 동쪽에 있는 청산성(靑山城)으로부터 남쪽으로 구부러져 석목리(石木里), 필서봉(必西峰)을 지나 염창리 금강변까지 토축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하나 청산성 북쪽 20m와 그 외는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다. 신라의 성곽

신라는 수도를 1,000년 넘게 금성에 정하고 도읍을 옮기지 않고 경주에 있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수도가 한반도의 동남방에 치우쳐 있는 까닭으로 불편을 느껴 천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끝까지 경주에 머물러 있었다. 경주의 남쪽에 흐르는 남천의 북쪽에 반월모양의 편평한 구릉으로 된 반월성(半月城)이 있는데 이 반월성은 신라의 왕궁성으로 오래 이용되었다. 왕도(王都) 방비를 위한 나성(羅城)은 만들지 않았으나 나성 역할에 해당되는 요충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산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산성은 동쪽에 명활산성(明活山城), 남쪽에 남산성(南山城), 서측에는 선도산성(仙桃山城)이 그것이고 그 외곽에는 관문성(關門城), 부산성(富山城), 북형산성(北兄山城)등이 배치되어 있다.

파사왕 22년에 남천 북쪽의 구릉에 월성이라는 성을 축조하고 왕이 월성에 옮겨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어 도성의 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월성의 규모는 동서 약900m, 남북 260m 정도이고 성내면적이 6만여평에 이르며 城 외곽의 둘레는 2,400m 가량된다. 성벽은 토석혼축이며 남쪽으로 굽어 반달처럼 생겼다하여 반월성이라한다. 성외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약간 높은 언덕을 따라 성벽을 돌렸는데 성내의 지반의 높이가 성외보다 7-18cm가량 높다. 군데군데 낮은 곳은 성외부로 통하는 문지(門址)로 생각되며 성벽의 정상에는 5폭으로 성벽선을 따라 10-20m 크기의 냇돌로 된 석열(石列)이 노출되어 길게 연결되어 있다. 주변하천을 해자(垓字)로 자연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 성곽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는 나성(羅城)을 축조하지는 않았으나 나성의 역할을 하는 동서남북의 산성이 있었다.

3. 고려의 성곽

고려시대에도 성곽은 꾸준히 조성되었다. 수도 개경은 도시 외곽에 나성이 축조되고 다시 안에 왕성이 갖추어져 이중의 성곽으로 조성되었으며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해서 장성을 쌓기도 하였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습격이 심해지자 해안가에 읍성 축조를 강화하고 아울러 산성에 대한 개축과 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평상시의 읍성과 유사시의 산성을 두는 방어 개념은 그대로 조선왕조로 이어졌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강한 의지로 북방경략에 힘을 기울여 북방의 영토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자연 북방접경지역의 축성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태조는 왕궁을 세우면서 황성(皇城)을 쌓았는데 그 크기는 모두 2천6백칸의 소규모로 아직 도성으로서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북쪽의 거란과 여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덕종 때부터 정종때에 걸쳐 약 12년 동안 천리장성을 쌓았다. 예종 때 윤관장군이 동북방의 여진을 정벌하고 그곳에 9성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원(元)의 지배 하에서도 축성이 이루어지고 왜구와 홍건적에 대비해변에 축성을 많이 하였다. 강화성은 고려 때에는 내성, 중성, 외성이 있었는데 내

성은 주위 약 1200m로 동, 서, 남, 북의 4개의 문으로 구성된 지금의 강화성인데 이는 고종 19년 천도 당시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원에 항복하자 배중손의 지휘 아래 삼별초군은 결사항전을 주장한다.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진도에 상륙한 삼별초는 왕운을 왕으로 추대하고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근거마련을 위한 성곽축조를 하였는데, 이때 축조한 성곽이 용장성이다. 용장성은 궁성을 기존 절터인 광덕사를 이용 개축하고 궁성 주변에도 토축의 성벽을 둘렀다.

고려는 후기에 와서 元나라의 횡포로 사회가 혼란하였지만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쌓기는 계속 이루어 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들끓는 말기에 읍성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때가 오늘날의 읍성이 축조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4. 조선의 성곽

조선조의 창업과 동시 부국강병을 위해 축성에 힘을 기울였다. 고려말의 외침에 시달린 경험을 바탕으로 북경행성의 축조 등 성곽축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여말(麗末)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안에 읍성의 축조도 계속되었다. 특히 읍성은 여말에 축성된 것을 석성으로 개축하고 읍성이 없었던 곳은 신축하였다. 이 시대의 읍성으로 현존하는 것이 많다.

태조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고 도성을 축조하기 위하여 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 태조 5년에 각도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축성을 완료하였다. 처음에는 토축이었으나 나중에 석축으로 개축하였다. 개축된 석성은 둘레가 약 17km, 높이가 40척 2촌이었다. 성에는 대문이 4, 간문(間門)4, 도합 8개의 문을 두었다. 현존하는 성문과 성벽은 숙종, 영정조 때에 수축된 것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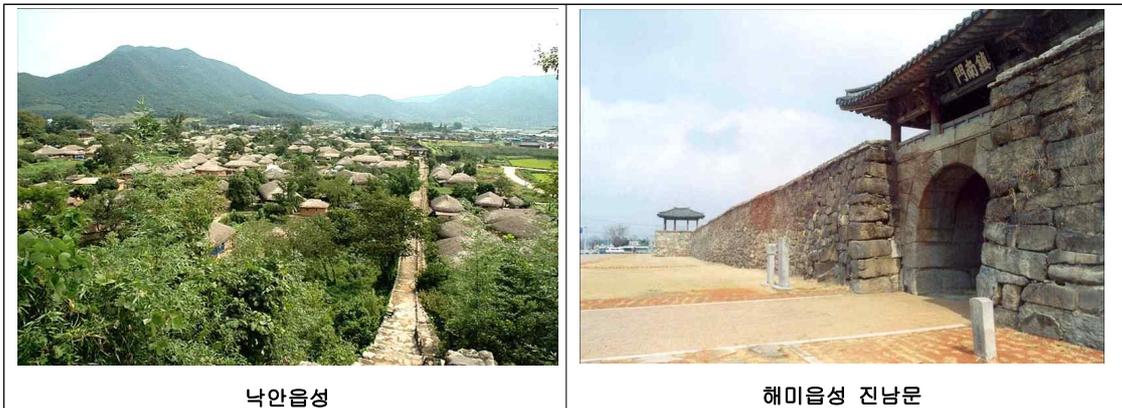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숭례문(남대문)은 태조 5년 2월에 완성되었고 여러차례 개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²⁾, 보물 1호인 홍인지문(동대문)은 태조 때 축조되었으나 현재의 성문은 고종 6년에 전부 개축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8문중 현재 남아 있는 성문은 숭례문, 홍인지문(동대문), 광희문(光熙門), 숙정문(肅淸門)이다. 이 중 홍인지문과 돈의문(敦義門)은 용성(甕城)이 있었다.

조선 초기 도성의 축조 이후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북방 변경에는 적의 침략에 대비한 행성(行城)의 축조가 성행하였다. 특히 세종, 성종 때에는 邑城의 축조가 활발하였는데 이당시 읍성축조의 특징은 토축이었던 것을 석축으로 개축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규모가 적은 것은 크기를 늘리는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읍성중 이

2) 2008년 2월 화재로 2층 누각이 불에 타서 현재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복원 중이다. 국보1호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숭례문의 기반 석축이 90% 이상 온전히 남아있어 국보 1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축조된 것이 많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당시 행정구역수 330개소에 읍성이 갖추어진 군,현이 160개소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335개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있는 곳이 96개소인데 그 중에서 하삼도(下三道)인 경상, 전라, 충청에 축조된 것만도 62개소에 이른다.(심정보, 한국의 읍성연구, 1995, p.341)이 당시 읍성의 대부분은 석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읍성은 산지에 축조된 산성과는 달리 평지나 구릉지(平山) 지역에 축조한 경우가 많아 원형, 방형 형식이 많았다. 성의 규모도 시가지 일부를 포함, 客舍, 官衙등의 건물을 두고 있어 행정, 군사적 요소를 갖는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낙안읍성

해미읍성 진남문

조선조의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산성축조형식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즉 유사시에 천연자연지세가 유리한 산성에 들어가 오랫동안 굴복치 않고 항쟁할 수 있는 것도 산성 특유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麗末부터 화약과 화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쟁양상이 변화하게 되어 종전의 방어시설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성곽의 방어시설물은 보강이 요구되어 읍성에는 적대(敵臺), 여장(女牆), 용성(甕城), 해자(壕字) 등은 규격화 하게 되었고 성벽은 견고 하게 하였고 높이도 자연 높아졌다.

III

성곽 축조 기술

1. 성곽의 축조과정

성곽의 축조는 재료에 따라 축조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축조의 목표는 모두 한가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땅위에 온전히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 흙으로든 돌로든 땅위에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옛사람들은 성곽을 축조하기 위해 다양한 토목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토목 기술은 현재에도 다양한 구조물의 축조에 사용되고 있다.

가. 기초 다지기

(1) 착암기초법

성곽을 쌓는 경우 기초부가 암반일 경우 암반에 기단석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흙을 파거나 기단석 전면에 턱을 만들어 기단석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구려의 산성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대의 산성에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공법일 가능성이 크다.

(2) 보강기초법

계곡이나 평지의 경우 지반이 약한 곳이 많다. 이때 지반이 약한 곳을 돌이나 토사를 사용하여 보강하는 경우다. 이때에는 약한 지반의 생토층을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얇게 쪼개진 돌(할석), 기와편 등과 점토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지는 공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법은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한 성곽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다.

(3) 그랭이법

기단석의 밑면을 바닥의 암석의 모양을 따라 다듬어 맞추는 방법을 그랭이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고구려의 장군총이나 태왕릉 등의 돌무지 무덤의 기단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닥의 암석층과 기단석이 서로 물리기 때문에 좌우의 횡압력에 매우 강하다. 이 공법은 대단히 어려운 공법이지만 정확하게 맞물리면 매우 안정적인 기단이 만들어져서 튼튼한 성곽을 쌓을 수 있는 고구려의 축성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나. 토성의 축조 방법

흙으로 성벽을 쌓는 경우는 석재를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또는 돌로 쌓는 경우에도 성벽의 바깥 면만 쌓고 안쪽으로는 흙을 다져 쌓는 경우가 많았다.³⁾ 이 토축부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석축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기능과 함께 석축에 가해진 충격을 완충시키는 기능을 했다. 토축의 방법으로는 삭토

3) 석축의 안쪽을 흙으로 쌓는 경우에도 토축부라고 한다.

법, 관축법, 유사관축과 성토다짐, 부엽공법, 성토 등이 있다.

(1) 삭토법(削土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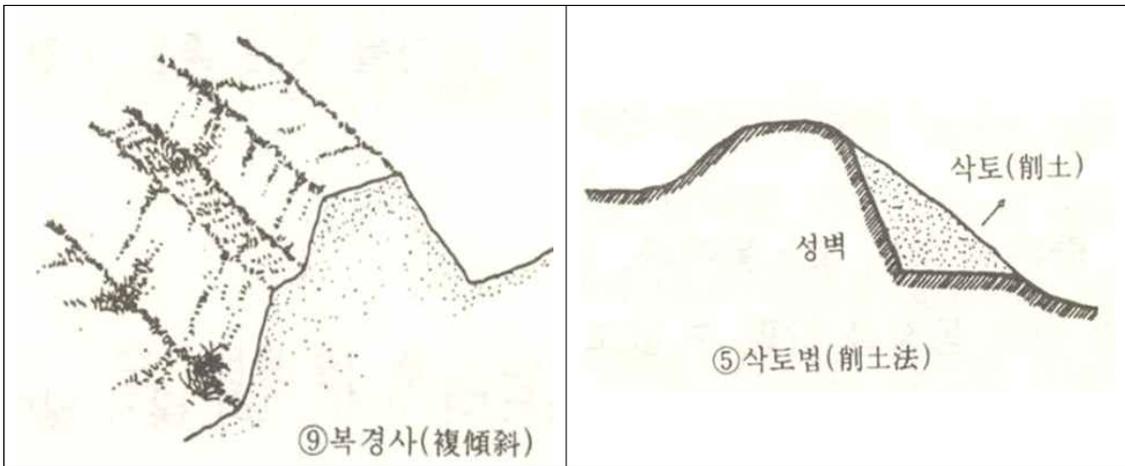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지형의 안팎을 적절히 깎아 급경사의 성벽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① 계단식 삭토법

계단식 삭토법은 성벽 단면에서 보면 원 지형의 경사면을 2~3을 이루도록 계단식으로 삭토한 것을 말한다. 공학적으로는 체성벽의 무게를 분산하고 빗물이나 지하수가 성벽에 스며들어 성벽 전체가 앞으로 미끌어져 붕괴되는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수직 삭토법

기초부를 단면이 L 자형을 이루도록 삭토하는 방법을 수직 삭토법이라고 한다. 기초부의 폭이 넓어서 안정적인 성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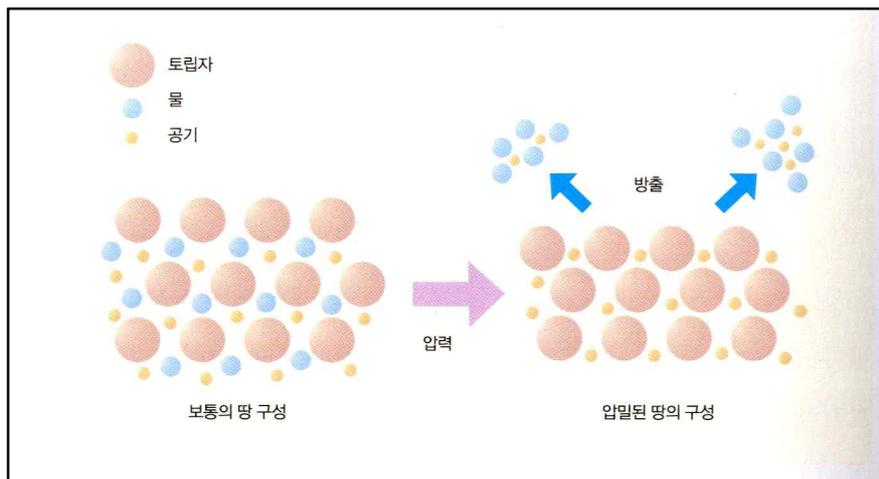
일정한 두께로 흙을 펴서 다진 후에 다시 쌓아 올리는 방식을 관축이라고 한다. 관축은 산성이 아니라 평지성의 경우에 주로 사용한 축성법이다. 먼저 지반을 정리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을 나누고, 구획 안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무관을 댄 뒤 빨흙과 모래, 나무 껍질 등을 켜켜이 쌓아 다져 올린다. 이렇게 한 구획을 쌓으면 다시 옆으로 이동해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토성인 풍납토성의 경우 내벽의 일부 구간에서는 식물유기체를 얇게 깔 것이 10겹 이상 확인되는데 빨흙을 부은 후 나뭇잎이나 나무껍질 등을 1cm 정도 깔고, 다시 빨흙을 까는 과정을 10회 이상 반복했다. 풍납토성의 경우 성벽이 높이가 9~15m, 폭이 43m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토성으로 공사에 들어간 흙의 양만 8톤 트럭으로 20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154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계산도 계산의 편의상 성벽의 모양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정해 나온 최소량이고 실제 성벽은 이보다 부피가 큰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 축성에 들어간 흙의 양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측으로 다져진 토성은 매우 견고하여 석성에 버금가는 정도이다. 관측이 견고한 이유는 “토질의 압밀 현상(Consolidation)”을 이용한 공법이기 때문이다. 토질의 압밀에 사용되는 가장 고도의 공법이 관측이다. 관측은 성벽의 축조뿐만 아니라 고분과 도성의 건축 등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법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은 흙입자와 그 외에 간극 부분,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흙입자 사이의 간극은 보통 물과 공기가 들어차 있다. 우리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흙과 공기와 물이 섞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가 이런 땅의 본 모습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의 몸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간다고 해도 걸거나 뛰는 정도로 땅에 변화를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건물 등의 건축 구조물은 다르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게다가 수백 년 수천 년 한 곳에서 움직이지도 않다. 따라서 약한 부분의 땅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흙을 다지는 이유는 흙과 같은 흙입자 사이의 물과 공기를 최대한 빼내서 입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입자 사이의 간극이 줄면 줄수록 땅이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를 **토질의 압밀 현상(Consolid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토질의 압밀 현상을 이용하여 토성이 수백 년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질의 압밀로 단단해진 땅>

(3) 성토법

흙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아 올리고 위에서 공이나 돌달고 등으로 다져서 일정한 성벽 형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토성 축조 방식이다. 성토법에는 유사관측과 성토 다짐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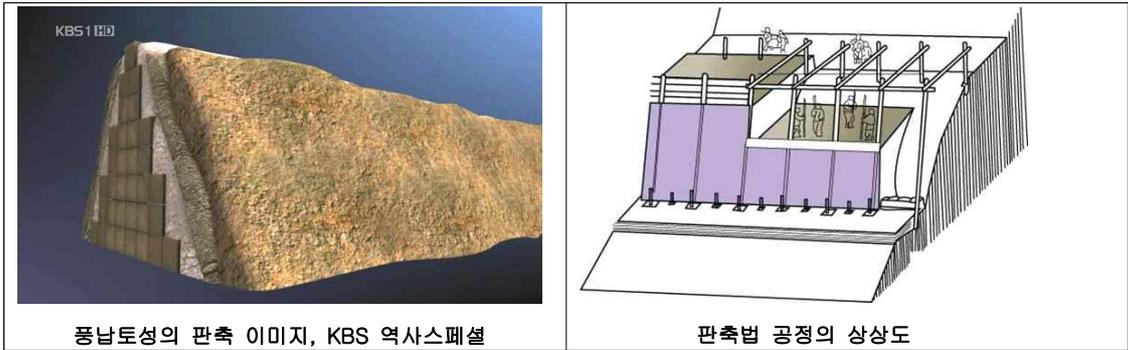
① 유사관측

영정주나 횡장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지만 관측에 가까울 정도로 점토와 모래를 교차로 다진 경우를 유사관측이라고 한다. 지형이 급경사를 이루어 성벽의 유실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계곡부와 같이 빗물이 집중되는 곳에는 흙다짐을 관측과 같은 정도로 했

다.

② 성토다짐

점토에 모래를 섞어서 성토한 후 이를 다짐한 경우를 말한다. 흙으로 구조물을 쌓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다.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토다짐이 나타난다. 구조적으로 안정된 곳에서는 기초부를 조성하면서 관 마사토나 사질 토양을 성토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일반 흙이 아니라 배수에 유리한 사질토양이나 마사토를 쌓았다.



※ 부엽공법

토성을 쌓는 경우 지반이 약한 경우에는 갈대 등의 식물이나 나무껍질을 엮어서 보강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엽공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흙의 강도를 높이고 성토된 흙이 흘러내리거나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제방을 쌓는 경우 쌓은 흙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때 식물을 깔아서 만든 부엽층이 배수층 역할을 하였다. 성벽의 성토층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 돌로 성벽 쌓기

성을 쌓을 때 돌로 쌓는 경우는 고대부터 있어왔다. 삼국시대에는 자연석에 가까운 돌을 이용하다가 점차 장방형의 마름돌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성의 경우 가공한 대형의 석재를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석에 가까운 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도성과 읍성의 경우 후대로 내려갈수록 잘 가공한 일정 규격의 장방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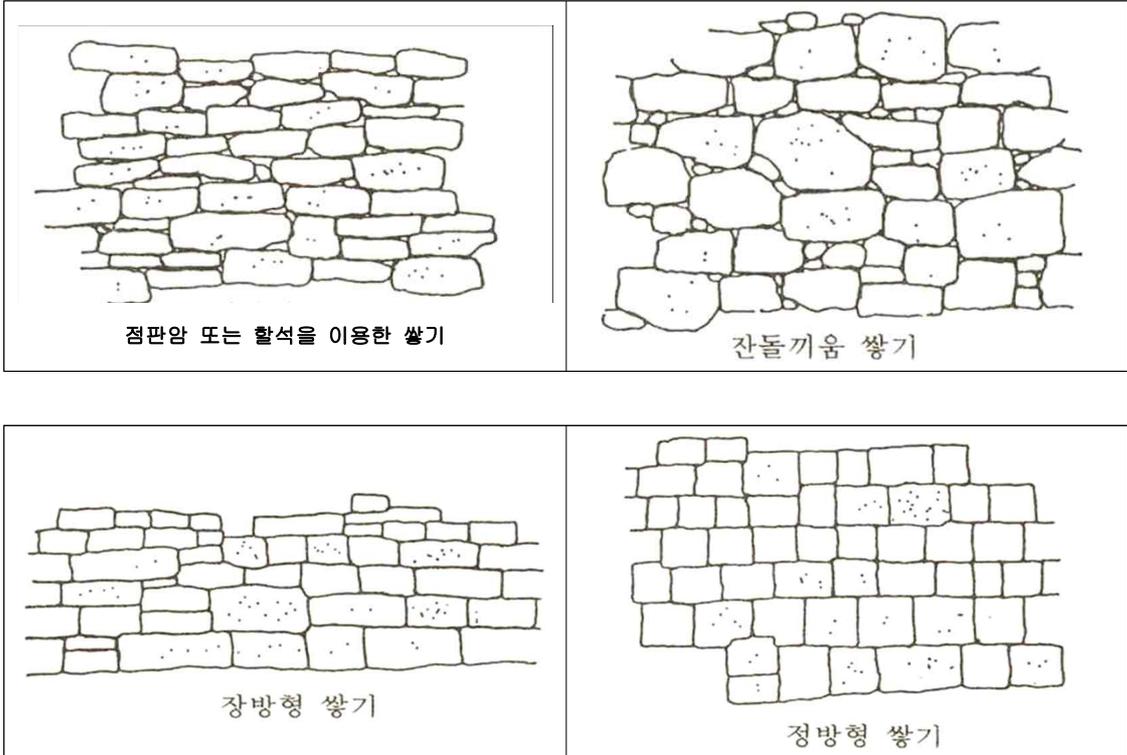
돌로 성곽을 쌓는 경우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거운 돌로 쌓은 석성의 경우 그 무게가 대단히 무거워 기단부에 가해지는 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맨 아래 기단부에는 대형의 석재를 한두 층 쌓은 후 그 위에 작은 돌을 쌓아 하중을 지탱하도록 했다. 고구려의 연주성(백암성)의 경우에는 기초석은 그 위의 돌보다 3배 이상 큰 돌을 사용하였다.

(1)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을 때에는 얇게 쪼개지는 점판암 등을 이용하여 쌓는 경우도 있고 큰 돌을 이용하여 쌓으면서 그 사이의 빈 공간에 잔돌을 끼워 쌓음으로써 성벽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기하는 경우도 있다.

(2) 가공한 석재를 이용한 석축

도성이나 읍성의 경우, 잘 가공한 석재를 이용하여 장방형이나 정방형의 석축 쌓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도로가 발달하여 대형의 석재를 운반하여 가공하기 쉽다는 공사의 편리성도 있지만, 왕이나 권력자의 권위의 표상이기도 했기에 그만큼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를 해서 쌓았음을 보여준다.



(3) 겹쌓기와 속쌓기

고구려는 완벽한 겹쌓기와 속쌓기를 했다. 겹쌓기란 돌로 성벽을 쌓을 때 바깥면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때 성곽의 외벽만 겹쌓기를 하고 안쪽은 흙으로 채우는 방법(편축법)과 성곽의 외벽과 내벽을 모두 겹쌓기를 하는 방법(협축법)이 있다.

① 협축법

성의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는 방법으로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쌓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그리고 석재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평지의 성을 쌓거나 성문 좌우의 중요한 지점에 협축법을 사용하였다.

② 편축법

편축은 성의 외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과 막돌을 이용해 채우는 방법이다. 편축의 경우 내탁과 산탁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내탁은 내부에 흙과 잡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석성을 쌓을 때 사용한 방법이다. 산탁은 산을 의지해서 내탁한 경우를 따로 말하는데 산성을 축조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



③ 켜기돌을 이용한 축성

석성을 쌓을 때 길쭉기는 작고 잘 다듬어진 돌을 이용하여 마치 메주를 쌓은 것처럼 가지런하고 빈틈이 없게 쌓는다. 특히 강냉이 알 모양의 켜기돌을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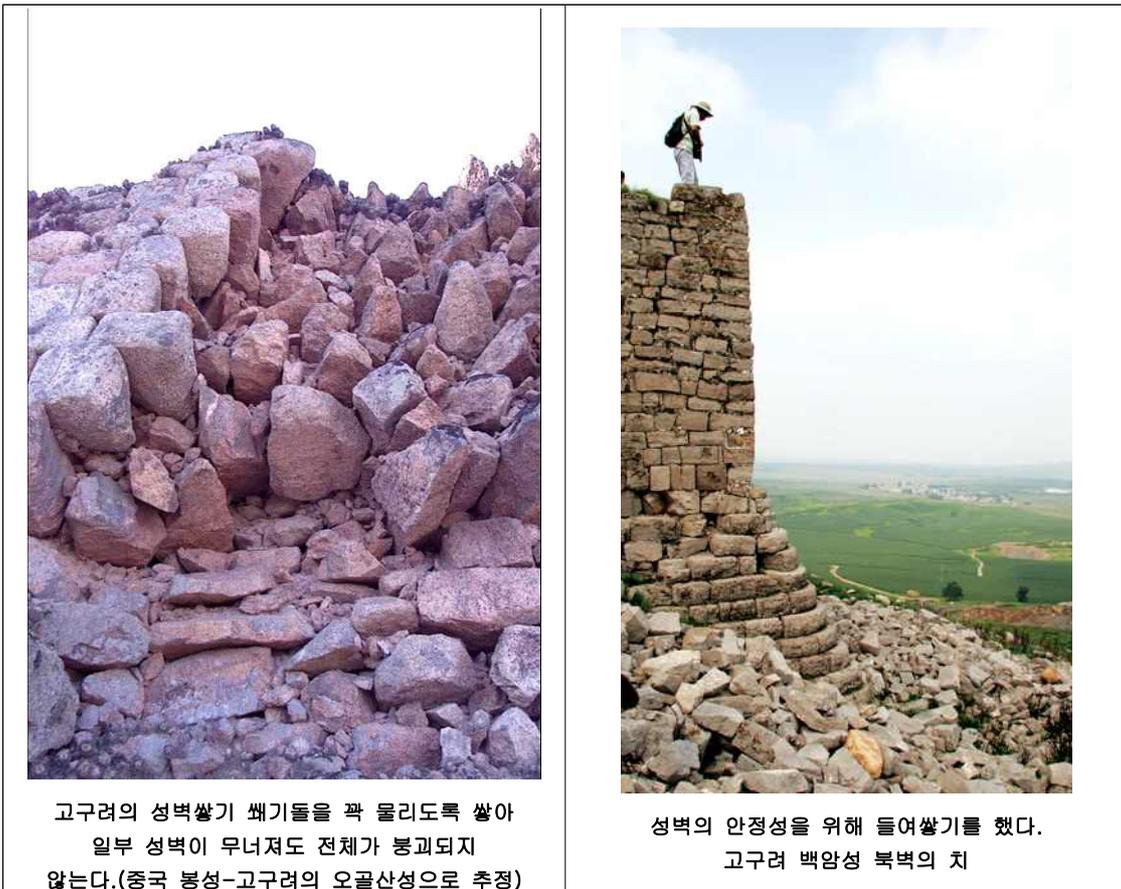
데 이것이 고구려 산성 축조법의 가장 뛰어난 점이다. 잘 다듬어진 썰기모양의 돌을 머리가 큰 부분을 벽 바깥쪽으로 놓으며 성벽의 경사에 따라 뒷부분의 두께를 조정한다.

걸쌓기의 기본공법은 벽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6합쌓기를 했다. 6합이란 벽돌을 쌓는데 같은 줄 양옆에 2개를 놓고 윗줄과 아랫줄 2개는 반씩 물리게 쌓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건물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쌓으면 밖으로 돌출되는 치성의 부분과 일반 성벽인 체성의 연결이 서로 맞물려 잘 연결되고 또한 치성이 성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겸하게 되는 매우 합리적인 축조 방법이다.

한편 썰기꼴 돌의 꼬리 부분은 속에 있는 잡석과 흙에 서로 꼭 맞물리게 하여 성벽 안의 속쌓기한 돌과 흙이 큰 힘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쌓은 성벽은 혹시 일부 성벽 돌이 자연히 뽑히거나 적들의 공격으로 성벽 밑 부분의 성돌이 뽑히더라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④ 들여쌓기(퇴물려쌓기)

성벽의 밑부분은 한층씩 쌓을 때마다 조금씩 들여쌓았다. 이를 퇴물려 쌓기라고 한다. 이는 튼튼한 기초를 위한 공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특히 치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들여쌓기의 경우 성벽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추게 하는 기능을 한다.



고구려의 성벽쌓기 썰기돌을 꼭 물리도록 쌓아 일부 성벽이 무너져도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다.(중국 봉성-고구려의 오골산성으로 추정)

성벽의 안정성을 위해 들여쌓기를 했다. 고구려 백암성 북벽의 치

2부. 조선의 성곽과 이야기

I

한양 도성의 축조과정

1. 축성시기

한양 성곽은 축성시기를 크게 3시기로 구분한다. 먼저 조선 태조 연간에 축성한 이후 일부 토성 부분을 석성으로 교체하고, 성문을 완성한 세종 연간, 임진왜란 이후 도성 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선 후기 숙종 연간의 수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헌 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등에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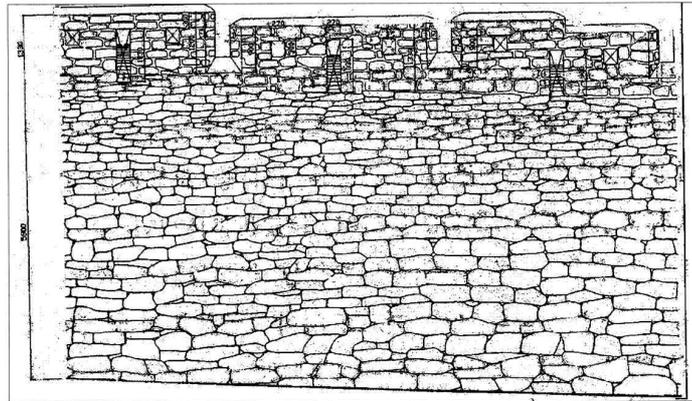
가. 태조 연간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여 종묘와 사직, 궁궐 등을 건설하고 수도 방위를 위한 성곽축조를 명한다. 태조 4년(1395) 윤9월 10일과 이듬해 1월 4일 태조가 도성 쌓을 자리를 돌아보고 1월 9일 개기제를 실시한 후 전국에서 민정 118,070명을 징발하여 도성 축조를 시작하였다. 축성공사는 2월 28일까지 49일간 진행되었는데 처음부터 농한기를 이용한 축성이었다.

각 구간마다 천자문의 첫 글자 순으로 백악 동쪽을 시작으로 ‘천(天)’자로 시작하여 97번째인 ‘조(弔)’자로 끝나는데, 전체 59,500척 중에서 실제 성곽 축조구간은 58,200척으로 1,300척에 자연 암반 지역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처음 공사 때에는 49일간의 농한기를 이용한 관계로 흥인문 지역이 완성되지 못하였다. 성벽은 막돌을 사용하여 허튼쌓기로 축조하였고, 면석들 간의 빈틈은 꺾돌을 사용하였으며, 높고 험한 지형에서는 석성으로 축조하여 높이가 15척, 길이 19,200척이고, 낮고 평탄한 지형은 토성으로 축조하였는데 하단부 너비 24척, 상단부 너비 18척으로 높이 25척, 길이 40,300척이었다.

동절기에 이루어진 축성은 무리가 많아서 그해 여름부터 도성의 수구와 용성 등 일부구간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경상, 전라, 강원도에서 역부 7만 9천 4백 명을 징발하여 잔연구간에 대한 개축과 붕괴된 부분의 수축 공사가 재개되어 그해 9월에 일단락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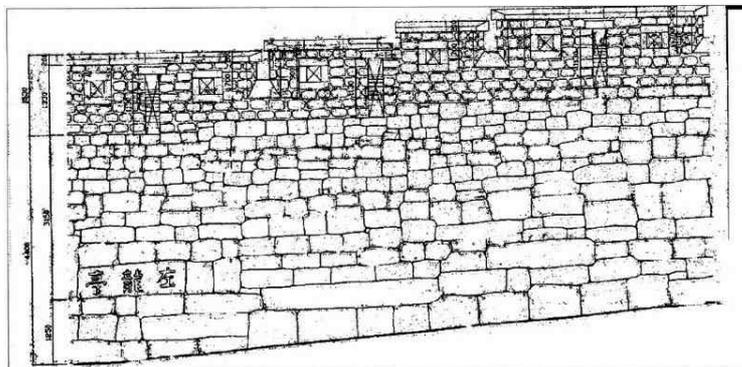


서울 성곽(태조 때)

나. 세종 연간

태조 연간에 축성된 성곽은 세종 연간에 이르러 많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세종 3년(1421)부터 도성 수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때의 도성 수축은 태상왕인 태종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공사기간을 40일로 잡고 403,755명을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징발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322,460명으로 인원을 줄여 공사가 시행되었고 태조 때와 마찬가지로 농한기인 겨울에 진행되어 세종 4년(1422) 1월 14일 고유제를 지내고 그해 2월 23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 중 태상왕(태종)과 세종은 잦은 포상을 하였으며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비롯하여 조선 초기 성곽의 수축은 병조, 공조 등에서 맡도록 하였으며 이 후 문종과 세조, 연산군, 광해군, 인조 대에도 부분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고수하거나 일부 구간을 수축하는 등의 소규모 도성 수축 기록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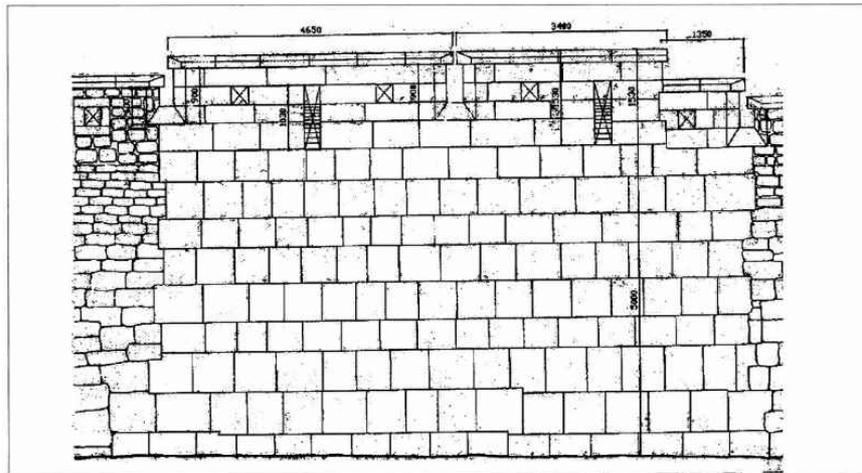


서울 성곽(세종 때)

다. 숙종 연간 도성 축조

외부적으로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내부적으로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을 경험한 조선 왕조는 ‘병자호란’의 결과로 맺어진 ‘정축년 약조’에서 조선 내에서 성곽축조를 금한다는 약속 때문에 성곽 수축 및 개축을 할 수 없었다. 숙종 즉위년(1695)부터 축성론이 대두되었으며 다수의 성곽이 개·수축 되었다. 도성의 수축은 북한산성의 개축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는데 결국 숙종 30년(1704) 도성의 수축이 단행된다. 도성의 대규모 수축은 세종 때의 수축이후 280여년 후인 숙종 30년(1704) 3월부터 실시된다. 조선 전기 축성 사업 주체는 중앙 관부로 그 중 공조와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축성과정을 주관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 왕권이 신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숙종 대의 대대적인 도성 수축과정에서 조선 초기와 변화된 점은 축성 주체가 중앙 군영인 5군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성의 수축이 시작된 숙종 30년(1704) 봄에 가뭄이 들어 축성공사는 일시 중단되었으며 그 이듬해 1월에는 ‘정축년 약조’에 의거하여 도성의 수축 사실을 청(淸)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성 수축공사의 재개는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다가 숙종 31년(1705) 5월 공사가 재개된다. 이후 5년 동안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성곽의 석축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 36년(1710)부터는 서울 성곽의 성첩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 초기 개·수축 때와 달리 중앙군인 삼군영으로 하여금 공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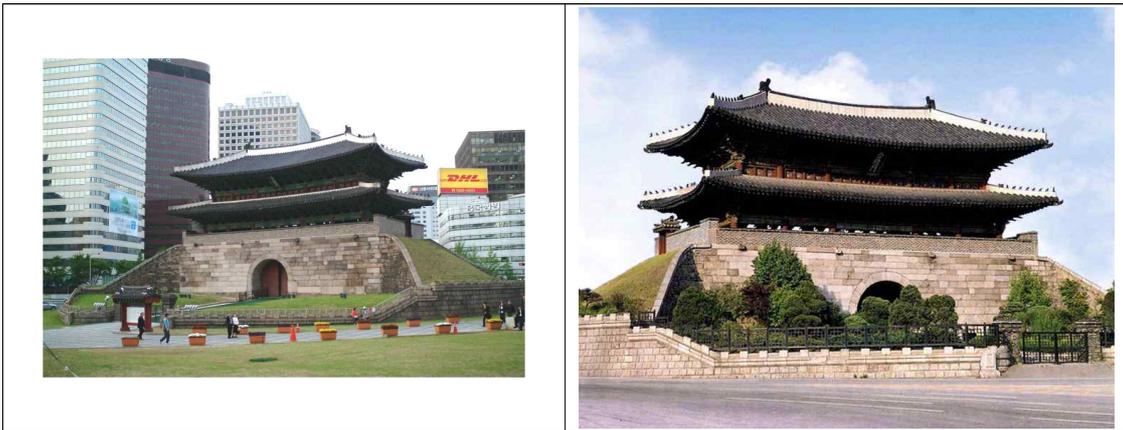


서울 성곽(숙종 때)

2. 4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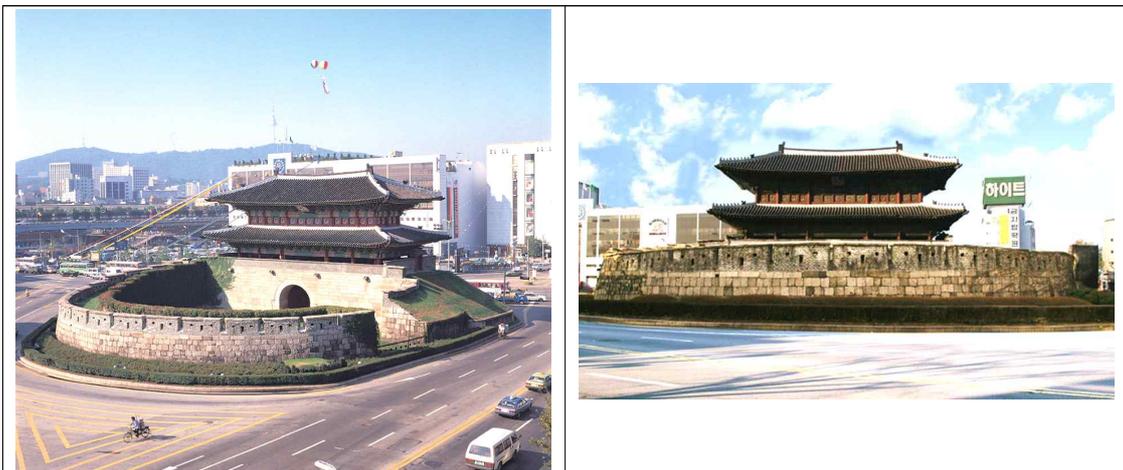
가. 숭례문

남대문, 국보 1호, 남대문은 도성과 궁전의 앞쪽에 위치한 남쪽에 있어 외국 사신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4대문 중 가장 중요시 되던 문이다. 태조 7년(1398)에 추축을 하고 세종 30년(1448)과 성종 10년(1479)에 중수하였다. 육축위에 중층 다포 건물을 세웠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 면적 1778.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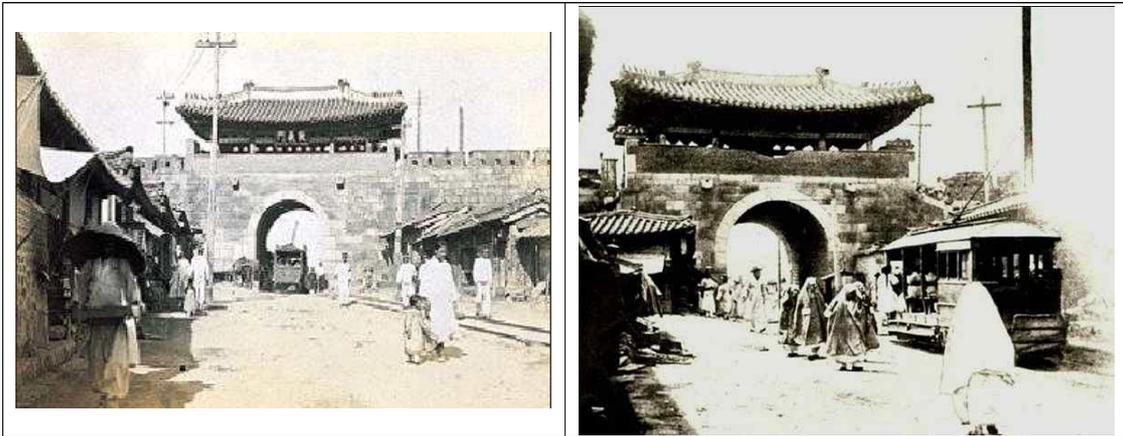
나. 홍인문

동대문, 동대문은 지형이 낮아 하부에 축대를 쌓아 제2차 공사(태조 5년 1396)에 완성된 문이다. 특징으로는 용성(태조 6년 1397)을 쌓았으며, 남쪽으로는 도성의 물이 오여 내려가는 곳으로 수구를 마련하였다. 숙종 원년(1675)에 중수되었으며, 고종 6년(1896)개축 현재의 동대문 형태를 갖추었다.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 면적은 156.6㎡이다.



다. 돈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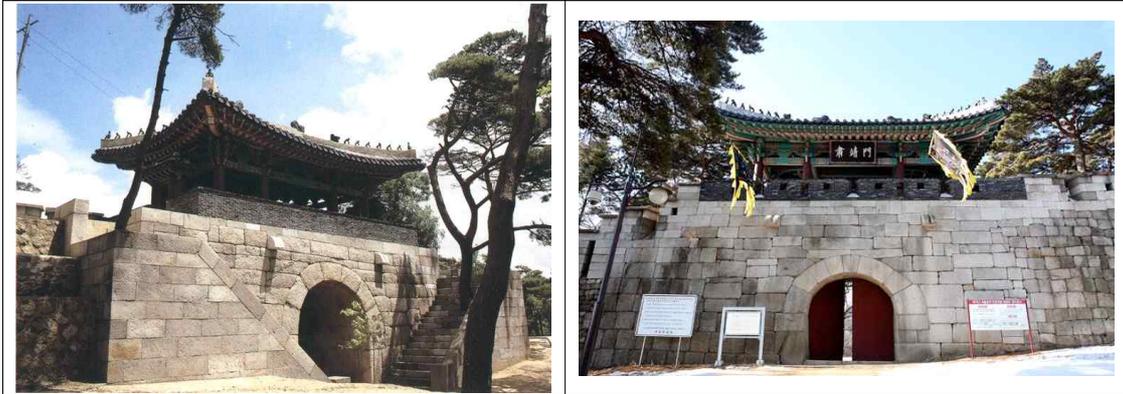
서대문, 태조 5년(1396) 9월 제2차 축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되었다. 태조 당시의 돈의문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폐지되고, 태종 13년에 신문(新門)인 서전문(西箭門)을 축조하였다. 이때 설치된 서전문은 지금도 서울중동고등학교 서쪽으로 추정된다. 또한 세종 4년(1442)에 지금의 신문로 사거리 넘어 언덕에 남쪽으로 이건하고 명칭을 본래의 명칭인 돈의문으로 개칭하였는데 이 건한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웅성을 쌓으려다 쌓지 않은 점, 통행의 편리 등을 감안하여 이 건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도로 확장공사때 철거되어 현재 4대문 중 복원이 안된 우여곡절이 많은 성문으로 현재 강북삼성병원 앞 거리가 세종당시 서대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이다.



라. 숙정문

숙정문, 4대문 중 북문에 해당하는 문이다. 그러나 숙정문과 창의문은 풍수지리학상 경복궁의 좌우 팔에 해당하므로 지맥을 손상할 수 있어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길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으로 보아 개통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음양오행설에 기인하여 가뭄이 들 때 음(북)에 해당하는 숙정문에는 문루가 없는 암문형식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성문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태조 5년(1396)에 창축된 숙정문은 태조 실록에 의하면 월단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근거하여 1976년 숙정문 복원 공사시 외벽쪽 일부구간 홍예를 1단 더 높혀 문루를 조성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단층 우진각 지붕이다.

숙정문은 1975년 문루 복원 계획 당시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고, 남대문도 처음에는 팔작지붕이었으나 세종, 성종 당시 개축하여 우진각으로 바뀌었으므로 숙정문 또한 우진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우진각 지붕으로 축조하였다.



3. 4소문

가. 창의문

매의문, 자하문. 이 문은 북악과 인왕산 중간인 서북지역에 위치한 성문이다. 숙정문과 같이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문의 통행이 금지되었던 우여곡절이 많은 문이다. 태조 5년(1396)에 창축하고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것을 영조 17년(1741)에 문루를 복원하는 중수를 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나. 홍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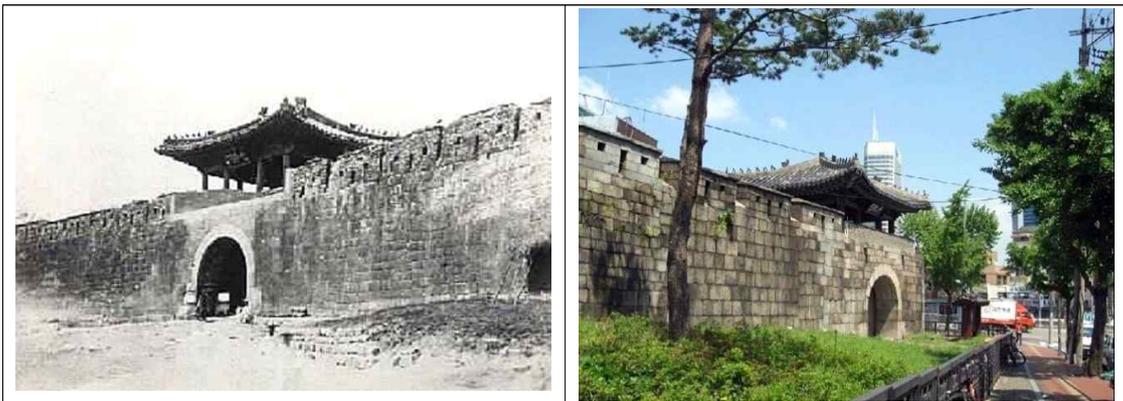
동소문, 혜화문. 동북방향의 성문으로 태조 창건당시 동소문을 “홍화문”이었으나 창경궁 동문이 홍화문이므로 성종 14년(1483)에 혜화문이라 개칭하였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문루를 영조 때 복원하였으며 일제 때 철거된 것을 원위치에서 서

북쪽으로 약 300미터 정도 옮겨 1992~1994년에 이전 복원하였다. 원터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다. 문루는 옥축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이다.



다. 광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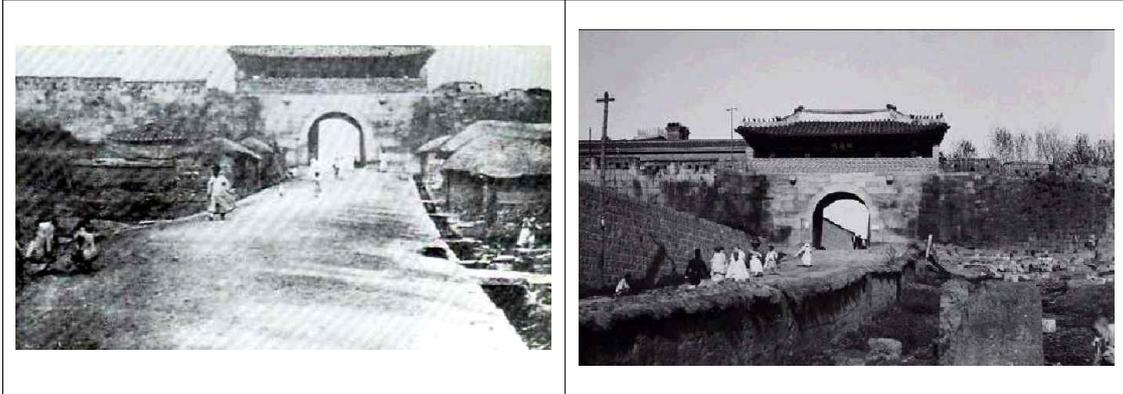
수구문. 서울 성곽 동남쪽 성문으로 태조 창건당시 광희문으로 명명되었다가 청계천이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로 지나가는 탓에 후에 수구문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것을 숙종 36년(1710)에 중건한 기록이 있으며, 6.25 때 훼손된 것을 1975년 문루를 남쪽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라. 소덕문

서소문, 소의문. 서울 성곽의 서남쪽 성문으로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영조 20년(1774)에 문루를 세우고 소덕문을 소의문으로 개칭한 기록이 조선고적도보에 사진 자료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때에도 상당기간 존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 확장으로 철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소문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여장을 충만없이 설치하였다. 지금 이 지점은 왕복 8차선 서소문로가 조성되어 문지확인이 어려우나 추정 문지를 중심으로 내리막길이 조성되어 있어 문지자리를 추정할 수 있다.



마. 남소문

태조 창축 때 없었던 성문으로 실록에 의하면 세조 2년(1456) 11월 20일조에 “청학동에 거동하여 수레를 멈추고 새 문을 짓는 일을 보았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세조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산 동쪽 지금의 한남동 부근에서 강을 건너 서울로 돌아오는데 불편함이 있어 지금길을 만들기 위하여 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었으며 지금은 장충도로 명명된 고개 정상에 5미터 내외 지반을 낮추어 도로를 조성하여 잔존 유구는 없다. 현재 이 고개길에 남소문터라는 문지 표석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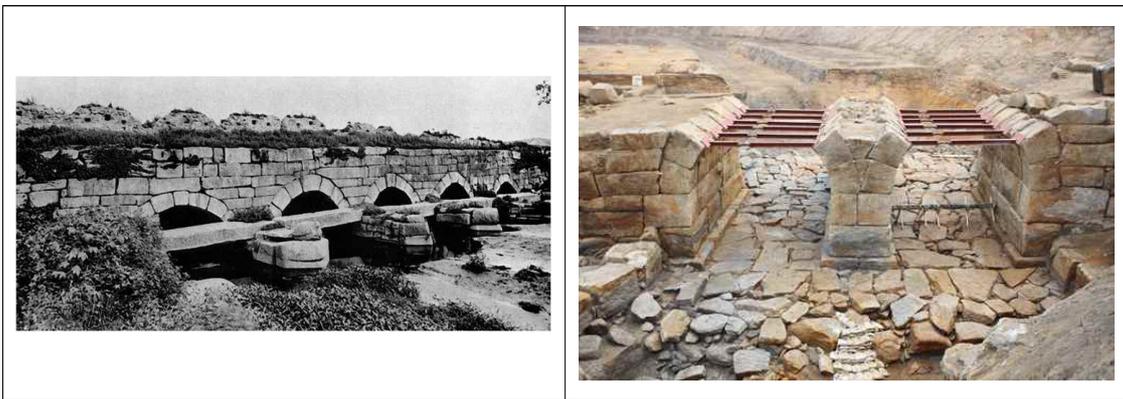


바. 수문

성곽 보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처리이다. 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성곽 붕

피 등 축성이 거의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성곽은 내사산과 외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청계천으로 모여 동쪽의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로 흘러 중랑천을 통하여 한강으로 흐른다. 태조 때 북변 수문 3칸, 남변 수문 2칸을 설치하였으나 홍수 때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세종 때 남북 수문을 각기 1칸씩 증설하였다. 이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수문이 모두 7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때 남변 수문 2칸은 이간수문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세종때 증설된 남북 수문 1칸씩은 북변 수문 3칸에 붙여 증설되어 현재 명명된 오간수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성의 수문인 오간수문지와 이간수문지는 태조와 세종대를 거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문은 연속 홍예를 틀어 그 위에 성벽을 쌓아 성곽과 연결하였으며 성 내부에는 성벽을 따라 통행에 편리하게 성책위와 내부에 홍예 기단석을 겸한 물가름돌을 놓아 그 위에 장대석을 걸쳐 성내부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 시기별 축조기법

태조 당시 축조 방법은 지형이 험한 산정에는 석성을 쌓았고, 평지에는 토성을 쌓았다. 총 59,500척 중 석성 20,250척 토성 39,250척을 쌓았다. 축조 당시의 석성구간과 토성구간을 명확히 알 수는 없다. 토성의 기본 축조 방법이 성내외를 파서 그 흙으로 토루를 쌓고 해자도 조성하였으나 서울 성곽에는 해자에 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서울 성곽 토성의 경우 평지에 토성을 쌓았고 해자나 참호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흙을 운반하여 판축의 형태로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산성의 경우 내부는 산턱으로 외부는 일부 삭토 또는 일부 성토하는 것으로 축조하였는데 서울 성곽의 경우 평지에 토성을 쌓았으므로 내외부 모두 토성으로 축조하였는 가정이 성립된다. 이럴 경우 내벽의 경우 성내 중간 보축을 두어 순찰로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할 길이 없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토성의 규모는 아래의 넓이는 24척 위의 넓이는 18척, 높이는 25척으로 되어 있다.

태조 당시의 석성은 내탁으로 외부에 석성을 쌓고 내부는 산 지형에 따라 완만하게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충동 서울 성곽 시굴조사 결과 태조당시의 축조 기법은 자연석에 가까운 다양한 크기의 깎돌을 사용하여 면석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석재를 이용한 난석쌓기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성곽이 기단부와 적심석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기단부를 보면 표토를 모두 제거하고 암반층에 장대석을 설치하여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았다. 서울 성곽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개 산성 축조에서 흔히 사용되어온 내탁식으로 축조 되었으며 기단에서 성돌을 쌓아 올리면서 면석에 적심석으로 사용되었던 할석이나 자연석을 차곡차곡 물려 안쪽으로 채워넣었다.

이 당시에는 길이 1자 내외 높이 반자 내외의 장방형 자연석과 1자 내외의 정방형 자연석을 섞어 퇴물림 방식으로 쌓았다. 중간에 뒷 길이가 1미터 내외의 심석을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을 꾀하였다. 내부 적심석은 잔돌을 사용하여 면석과 물리도록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대에는 태조때의 토성을 전부 석성으로 개조하였다. 여기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면서 협축형태로 쌓았는지 아니면 내탁형태로 쌓았는지에 대한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없다. 만약 협축 형태로 쌓았다면 보축 등 성곽 시설물이 있었을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당시의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아래에는 큰 돌을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성돌을 퇴물림방식으로 쌓았으며 중간 성돌사이에 킴돌을 사용, 구조적으로 안정을 꾀하였다. 이 당시 면석의 규격은 2자내지 4자의 장방형으로 실제로는 길이 4미터가 넘는 장방형 면석도 있었다. 적심 또한 태조때의 축조형태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당시에는 2자 내외의 정방형에 가까운 면석을 외부에서 가공하여 짜맞추듯이 성벽을 개축하였다. 여장 또한 가공한 석재로 매끈하게 축조되었다. 석재면은 거의 수직으로 쌓고 성벽의 기울기와 같은 면으로 쌓았으며, 윗돌과 아랫돌의 퇴물림 간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축조하였다.

서울 성곽은 1975 ~1979년 사이에 대대적인 복원정비공사를 하여 대부분 시대별 축조형태대로 축조하고자 하였으나 고증 등이 덜 된 상태에서 복원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원래의 성벽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적심석이 흠등으로 채워져 있어 붕괴 우려를 안고 있으며, 면석 또한 뒷길이가 거의 없는 면석 사용 등으로 안정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4. 조선시대 방어체제

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 왕조를 세운 집권층은 고려 말 권문세족과의 대결 과정을 겪은 신진사대부

와 신흥무인 세력으로 사병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 사이에 일어난 이른바 ‘정몽주의 난’이나 조선 초기 ‘왕자의 난’ 등은 집권 세력이 가진 사병 조직과 토지 등 경제적 토대 위에서 일어났다.

조선이 강력한 중앙권력을 지닌 왕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권이 지닌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앙정부체계 안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태종의 사병철폐 이후 세종과 세조를 거치면서 도성과 왕실을 보호하는 강력한 중앙군체인 5위(五衛)체계와 지방군체인 진관체계가 마련되었다. 국방정책의 기초는 인력과 시설의 전국적인 배치를 통하여 전방과 후방,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방어체제이며 조선 초기 집권세력이 추구했던 중앙집권체제에 부합하는 국방체계였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陽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로 나뉘어 진다. 5위체계는 각 위(衛)마다 5부를 두고 다시 각 부에 4통(統)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며, 평상시에는 중앙군으로 수도경비의 임무를 맡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로서의 활동이 가능한 조직이다.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등 왕의 친병계열을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병종(兵種)이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정비된 단일 체계의 중앙군이다. 진관체제는 세조대에 확립되었는데 전국에 진과 관을 두고 고르게 군대를 배치하는 것으로 건국초기 일어난 ‘이시애의 난’, ‘이징옥의 난’ 등의 반란과 여진족의 침입 등 국지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관체제는 영토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의 뒷받침 하에 유지될 수 있는 지방군제이다.

세조 이후 조선 왕조가 안정화되면서 기존 방위체제는 제도 자체가 갖는 모순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중앙군의 기간(基幹)이었던 5위제는 성종 말기 이후 두드러진 훈척정치의 결과 문신이 상위직을 차지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무력함을 드러내게 된다. 지방군체인 진관체제는 명종대의 잦은 왜구 침입으로 제송방략으로 전환된다. 제송방략체제는 일종의 ‘분군법(分軍法)’으로 요충지에 군대를 집결시키는 것으로 일국이 유지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가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전면전에 유리하도록 보완된 체계였다. 그러나 조선의 제송방략체제는 임진왜란 이전 출몰하던 왜구 등 소규모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제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허약성을 드러냈다.

조선초기 마련된 방어체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전면전을 대비한 것도 아니었으며 사회가 안정되면서 변질되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양란(兩亂)이후 조선에 새로운 방위체계가 마련되었다.

나. 양란 이후 방위체계의 정비

임진왜란은 종래의 국지전과는 달리 전면전·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조총(鳥銃)이라는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등장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은 조총이라는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등장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은 일본군

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포수(砲手)를 양성하여야 하였고, 전국에 걸친 군사조직을 재건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치된 것이 중앙군으로는 5군영, 지방군으로는 속오군이였다. 5군영은 훈련도감(訓練都監),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금위영(禁衛營), 수어청(守禦廳)으로 임진왜란 당시 창설된 훈련도감을 필두로 인조대에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이 창설되었다. 이들 가운데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은 중앙 군영이라 하여 삼군문(三軍門)이라고 불렸으며 주요 임무는 도성의 수비와 방어였다. 또한 총융청과 수어청은 수도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속오군은 임진왜란 중인 선조 27년(1594) 유성룡(柳成龍)의 건의에 따라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편성이 시작되었다. 속오군은 병농일치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위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조선 초기 지방 방어체제인 진관체제가 정비되면서 전국적인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정유재란 때에는 속오군이 실전에 투입되어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였다. 속오군 체계에서 각 지방의 양민은 속오군에 편성되었는데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없었다. 반면에 중앙군인 5군영에 소속된 군사들은 매달 쌀 4~9말을 급료로 받는 직업 군인으로 대부분 근무지에서 가까운 도성과 그 인근에 거주하였다.

이와 함께 17세기에 방어 전략은 도성 외곽에 성곽 또는 보루를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였다. 인조 4년(1626) 남한산성이 축성이 완료되면서 남한산성과 강화도를 잇는 보장처(堡障處)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전란이 발생하면 왕은 강화도로, 왕자는 남한산성으로 입거하여 대적한다는 것이였다.

다. 조선후기 방어 체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사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농업에서 이앙법과 시비법, 윤작의 실시 등의 농법의 변화로 생산력이 증대되어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져 경영형 부농층과 토지에서 이탈되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임노동자층으로 변화된다. 또한 농업생산력이 증가되어 잉여생산물이 늘어났으며 상품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다. 일련의 경제적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조(租)·용(庸)·조(調)의 세법이 변화된다. 특산품을 바치는 공납제는 문제점이 조선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공납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된다. 대동법은 국가가 공납 받던 물품 대신 돈으로 받고 필요한 것은 관영 상인 집단인 공인(貢人)에게 사들이는 것이다. 대동법의 실시로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이 촉진되어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또한 균역법의 실시로 직업 군인이 발생되고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 중 일부는 도성 인근에 거주하는 군인으로 수용된다. 상업의 발달과 양민층의 분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을 가져오고 도성의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되는데 이에 따라 도성의 영역은 확대된다. 또한 종전에 정치 중심도시에서 근대적 상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속종 이후

방위체계는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확장된 수도방비체계는 외적에 대한 방비가 주목적이 아니라 내부 문제에 편중된 치안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훈련도감의 창설로 시작된 5군영체계는 숙종 대에 이르러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완성된다.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군영은 남인과 서인의 봉당세력의 기반으로 난립되면서 북벌론, 축성론 등의 명분을 내세워 군비확장으로 이어졌다. 조선사회가 전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왕권이 안정되는 숙종 대에 와서 정치적으로 탕평정치가 구현되고 국왕에 의한 5군영체계는 완성을 보게 되고 특히 도성을 수비하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중심으로 삼군문 도성수비체계를 성립하게 된다. 삼군문 도성수비체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숙종 즉위 초부터 도성수축론과 북한산성의 수축론 등에 명분을 내세워 도성의 수축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의 수축 역사가 이루어진다.

뒤 이은 영조대의 방위체계와 축성 원리는 숙종 대의 것을 계승한다. 조선 후기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였던 영조는 집권 초기부터 탕평정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즉위 초 경색된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조 4년(1728)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면서 도성으로 북상하는 반군에 대하여 영조는 도성 사수의 방책을 천명한다. 도성 사수책은 숙종 때 위상이 높아진 삼군문과 도성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도방위를 위한 군대의 배치와 토벌군의 파견 등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인좌의 난’은 초기에 진압된다. 반란군이 진압된 후 영조는 중앙 군영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실 호위를 강화하고 도성으로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영조는 우선 정치적 안정과 대규모 공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소론의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청요직의 혁파와 서원 철폐와 같은 일련이 조치를 단행한다. 영조 18년(1742) 강화 외성의 축성은 일련의 조치들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처음 시작된 대규모의 공역이었다. 강화도를 개발하는 것은 조선 후기 상업 자본으로 성장한 경강상인의 유통거점을 확보하여 국가의 수세처로 삼으려는 의도와 함께 수도 방위체계의 전초전이었다. 강화외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영조 21년(1745) 영조는 도성사수론에 대한 현실화 방안으로 금위영과 어영청의 초루 창건, 성곽의 여첩수리 등 도성수축을 시작한다. 2년에 걸친 도성 공역이 끝나자 농성시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삼군문을 중심으로 하는 도성 방위체계를 확립한다.

숙종이래 삼군문을 중심으로 한 도성방위체계는 정조 대에 들어오면서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방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정조는 조선 초의 진관체계를 복구하고 오위체계의 환원을 군제 개혁의 방향으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성 중심의 집권 노론세력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한편 18세기 이후 상업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도성은 기존 시전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점차 확대 발전되었으며 신해통공 이후 도성 외곽에 새로운 거점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유통체계의 확대는 서울과 수원, 광주, 개성, 강화를 잇는 유수부 체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왕권의 확립과 정국의 안정을 추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신변보호와 숙위체계에 관

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정조는 집권 노론세력의 견제책으로 북학파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두고 그 위상을 높였으며 친위부대인 장용위를 설치하였다. 특히 장용위의 설치와 재정확보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은 화성건설로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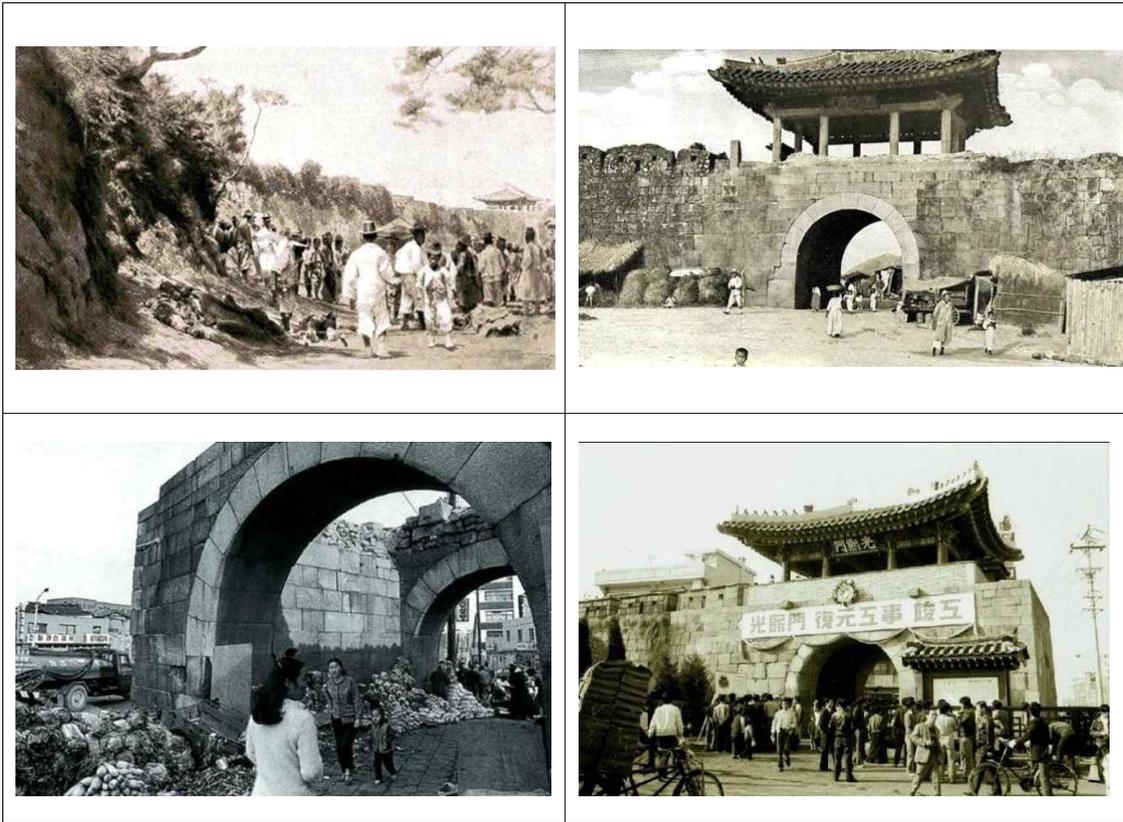
화성성역은 공사를 개시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완공을 보게 된다. 화성의 건설은 관방의 기능뿐만 아니라 근대적 계획 상업도시를 건설이라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한 대역사로 수원을 급속하게 대도시로 바꾸었으며 수원을 우수부로 승격하여 장용영 외영제를 실시하고 장용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조이 화성 건설과 장용영의 확대는 기존의 삼군문을 축소시키고 왕권 확립의 기반이 되는 군령권 장악의 기회로 이용되었으며 나아가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의 개편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조 사후 장용영의 혁파와 삼군문체계의 부활로 기존의 도성방위 체계로 환원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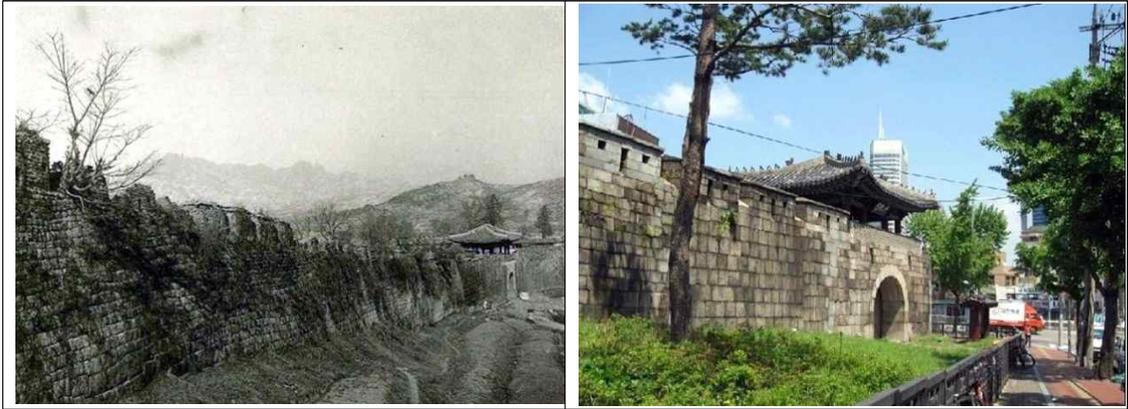
한양 도성의 역사와 문화

1. 광희문((光熙門)



광희문은 사소문 가운데 하나이자 도성의 동남문이다. 태조 5년 9월 24일 한양 도성이 완성될 때 홍예문이 완성되었다. 정도전은 도성의 동남문을 광희문(光熙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일명 수구문(水口門)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도성안에 묘를 쓸 수 없었다. 도성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은 서소문과 광희문 두 곳으로만 나갈 수 있었다. 서울 동북 방면에 묘지를 정하면 광희문 거쳐서 운구했으므로 시신을 보내는 문이라 하여 시구문(屍口門)으로도 불렸다.

광희문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경 문루마저 무너져 내려 돌로 된 홍예문만 초라하게 남아 있었다. 1913년 을지로 7가에서 왕십리 쪽으로 전자 지선이 놓이면서 광희문 북쪽 성곽 일부가 헐렸고, 1966년 퇴계로가 확장되면서 퇴계로 7가 쪽 성벽이 헐렸다. 1974년 12월부터 1975년 11월까지 다시 퇴계로를 확장할 때 광희문의 홍예문을 아예 남쪽으로 약 15미터 옮겨 버렸다. 본래의 자리에 광희문을 두고서 도로를 내는 문제는 애초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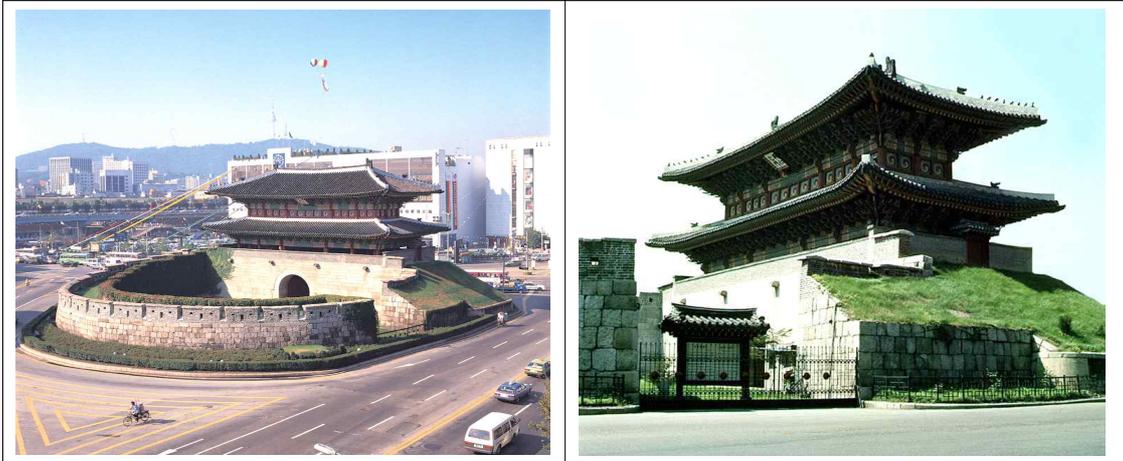
2003년에 광희문에서 남측으로 120미터 정도 복원이 이루어졌다. 성벽 위아래에 있던 주택들을 매입하여 복원한 것이다. 이제는 광희문 남측으로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잔디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진달래, 개나리도 심었다. 보기에는 그럴 듯 하다. 광희문 남쪽 성곽 복원 모습을 1890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여장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현재 서울 성곽은 무조건 화강암 마름돌 여장으로 복원하고 있다. 하지만 1890년대 광희문 남쪽 성곽 여장은 구운 벽돌이다. 옛 사진을 고증하지 않고 그냥 복원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2. 동대문(東大門)

정도전은 도성의 동문을 흥인문(興仁門)이라고 불렀다. 유교 불변의 가치인 오상(五常) 중 동쪽을 가리키는 인(仁)이 들어가는 이름이었다.

여기서 잠깐 유교의 원리를 도성 건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살펴보자. 다음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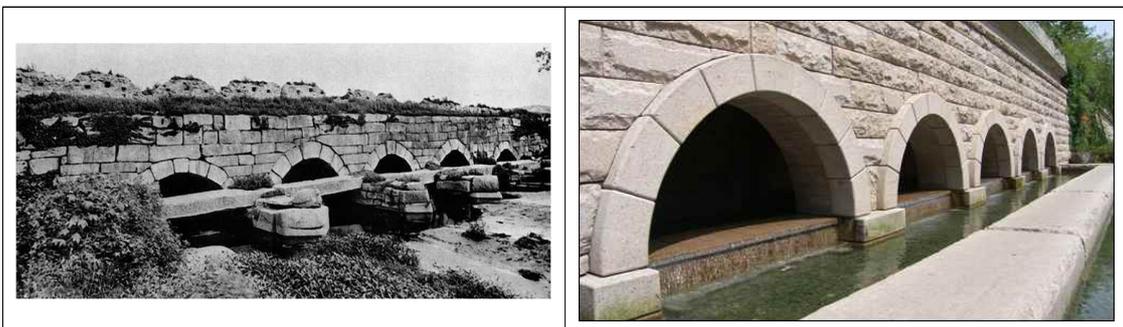
오행	방위	색깔	계절	주신	도덕덕목	4대문	풍수지리
목(木)	동	청	춘(春)	(좌)청룡	인(仁)	흥인지문	낙산
화(火)	남	적	하(夏)	(남)주작	예(禮)	승례문	목면산
토(土)	중앙	황	수확기	황조	신(信)	보신각	경복궁
금(金)	서	백	추(秋)	(우)백호	의(義)	돈의문	인왕산
수(水)	북	흑	동(冬)	(북)현무	지(智)	숙정문	북악산



홍인문은 도성 팔문(八門) 중 유일하게 평지에 세운 문이다. 동쪽은 지대가 제일 낮아서 도성을 둘러싼 내사산의 물이 모두 모여 동쪽으로 흘러 나갔다. 홍인문도 낙산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개천과 거리가 가깝다. 개천과 가까운 땅은 물이 많이 난다. 동대문도 똑같은 땅이다. 물이 많은 땅은 기초를 쌓기가 힘들다. 그 힘든 공사를 결국 태조 5년(1397) 9월 24일에 홍예문이 완성되었다. 다음 해 1월 27일에는 태조가 직접 동대문에 나가 용성이 들어설 땅을 살폈다. 글부터 3개월 후 용성이 완성되었다. 세종 대에 돈화문을 새로 지을 때나 성종 대에 남대문을 중수하면서 용성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유일한 평지 성문인 동대문만이 용성을 가진 셈이다.

3. 오간수문

오간수문은 동대문에서 을지로 6가로 가는 성벽 아래쪽 청계천 6가에 있던 다리이다. 다섯 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오간수다리 또는 오간 수문이라 했다. 1908년 3월에 동대문 북쪽 ‘ㄷ’자 성벽이 헐릴 때 같이 헐렸다.



청계천의 물길은 인왕산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고, 북악산에서 흐른 계곡 물은 경복궁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하문 계곡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합쳐진다. 응봉에서 흘러내린 물은 창덕궁 안으로 들어갔다 종묘를 거쳐 지금의 기독교회관 근처로 빠져나와 종로 5가에놓여 있던 이교(二橋)를 지나 개천에 합류한다. 청계천 북쪽에 서울 내사산 중 세 개의 산이 다 몰려 있는데, 그곳의 물줄기 수보다 청계천 남쪽에 있는 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수가 더 많다. 그만큼 남산이 넓다고 하겠다.

인왕산과 북악산 물과 남산 물은 지금의 장교동에서 합류해서 흐른다. 옛날에는 이곳을 청계천 삼각지라 일렀다. 두 가닥의 청계천은 한가닥으로 합쳐져 강폭을 넓힌다. 내사산의 물줄기가 다 모여 오간수문을 통해 도성을 빠져 나간다. 현재 신라호텔이 있는 쪽에서 내려온 물줄기는 따로 이간수문을 빠져나간다. 장교를 지나면 수표교, 수표교를 지나면 효경교, 효경교를 지나면 태평교, 태평교를 지나면 드디어 오간수문이다. 오간수문을 빠져나간 청계천 물은 영도교를 지나 중량천 물을 받아 들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오간수문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대대적인 준치 역사가 진행된 영조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영조 때 준천 역사는 영조 36년(1761)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57일간 한양 도성 주민 15만명과 샷을 주고 채용한 인부 5만명을 동원하여 진행된 대역사였다. 조선조 500년 동안 내사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은 모두 받아 내면서 튼튼하게 제자리를 지킨 오간수문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이듬해인 1908년 3월 동대문 북쪽 성벽이 헐릴 때 같이 헐려 일제에 의해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었다.

4. 낙산

새로 조성된 낙산 북쪽 서울 성곽 탐방로는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이 구간은 세종 때 축성한 것 중 가장 험있고 아름다운 성곽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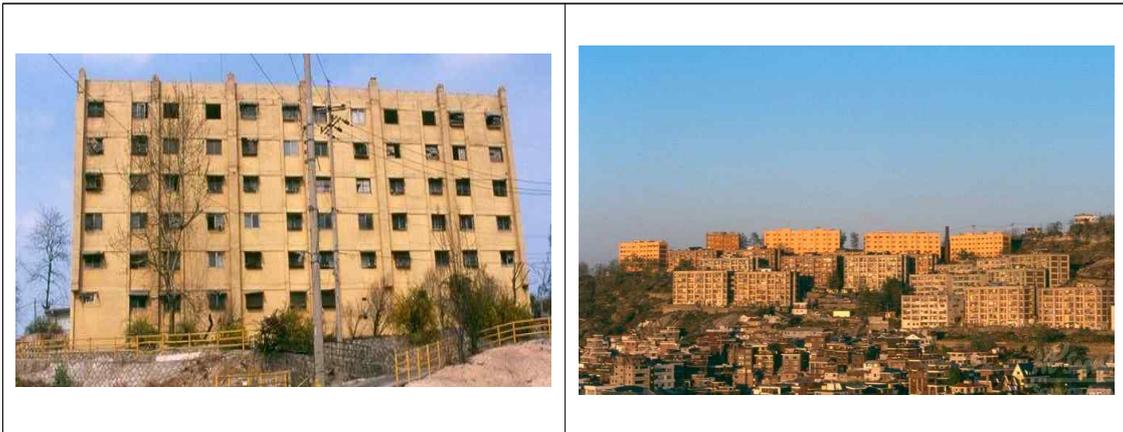


숙종때 성곽은 정방형 돌을 쌓아 올린 것이라 조형적 변화는 없고 단순하다. 하

지만 세종 때 사용한 돌은 규모가 일정치 않은 장방형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 그 진면목이 이곳에서 드러난다.

낙산은 해발 125미터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다. 산의 모양이 낙타와 같아서 낙타산, 낙산, 타락산이라 불렀다. 낙산은 주산인 북악의 동쪽에 위치하여 좌청룡에 해당한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숲이 우거졌고, 깨끗한 수석과 약수터가 있었다. 특히 낙타의 유방에 해당하는 곳에 약수가 있었는데, 낙산 서쪽 산록 지역으로 쌍계동(雙溪洞)이라 불렀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보면, 쌍계동은 암석이 기이하고 수림이 울창하며 맑은 물이 흐르는 절경으로 삼청, 인왕, 백운, 청학과 함께 더불어 도성 내 5대 명승지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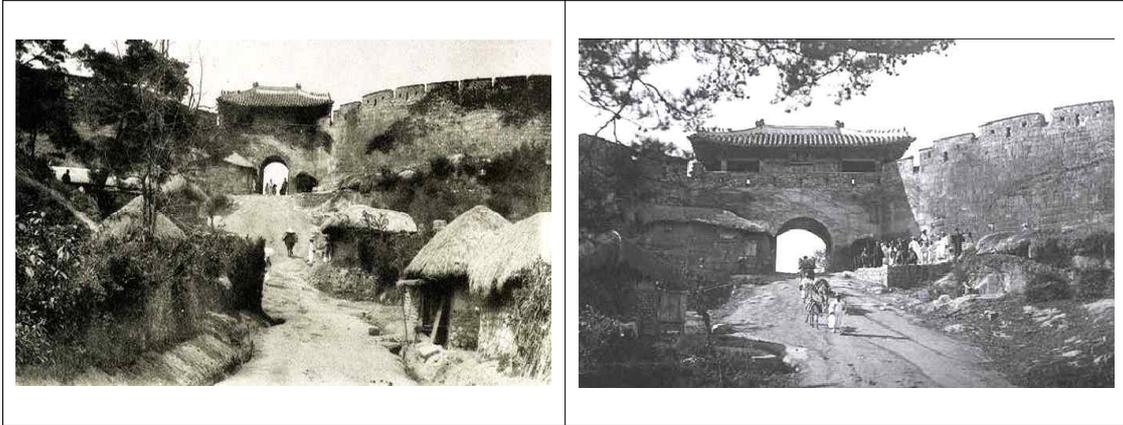
1924년 낙산 남쪽 기슭에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서면서 낙산에 큰 변화가 왔다.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 서울대가 되면서 낙산 아래 동네 거리 이름은 대학로로 불렀다.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선 것이 낙산 주변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했다면, 낙산 자체에 가장 큰 변화이자 상처를 준 것은 1969년 김현옥 서울시장이 지은 낙산시민아파트였다. 낙산시민아파트는 낙산 정상에 세웠기 때문에 낙산이 지닌 모습과 문화와 역사 모든 것을 말살했다. 낙산시민아파트에 소방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낙산 정상에 서울 성곽까지 분단해야 했다. 무지막지한 개발 시대가 지나가고 낙산시민아파트도 헐렸다.



5. 혜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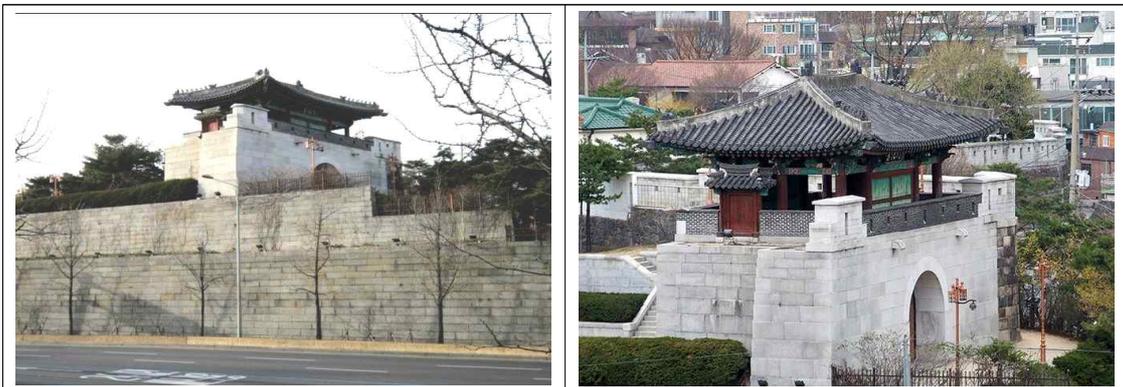
혜화문은 도성의 동북문으로서 태조 5년(1396) 9월 24일에 도성이 완성되었을 때 홍예문도 완성되었다. 정도전은 동북문 이름을 홍화문(弘化門)이라 했다. 그리고 속칭 동소문(東小門)으로 불렀다. 그런데 조선 성종 14년(1483)에 창경궁이 새로 건립되면서 동쪽 정문을 홍화문(弘化門)이라 했다. 그러자 중종 6년(1511)에 이름이 혼동된다고 하여 동소문을 혜화문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 이 문은 북쪽의 숙정문이 항상 닫혀 있었으므로 함경도 등 북방으로 통하는 경원가도(京元街道)의 관문

역할을 했다. 실질적인 북문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조선 초에는 여진족을 야인(野人)이라 불렀다. 야인 사신의 숙소는 북평관(北平館)이었는데, 동대문 옆 옛 이화여대 부속병원 자리에 있었다. 중종 23년(1528) 9월 21일 실록 기사에 “야인은 늘 동소문으로 왕래 하거니와.....”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여진족이 서울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혜화문을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이 중원을 제패하면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사신들은 예전의 명나라 사신들처럼 돈의문으로 출입했다. 그때부터 여진족의 사신이 왕래하는 문이라는 혜화문의 기능은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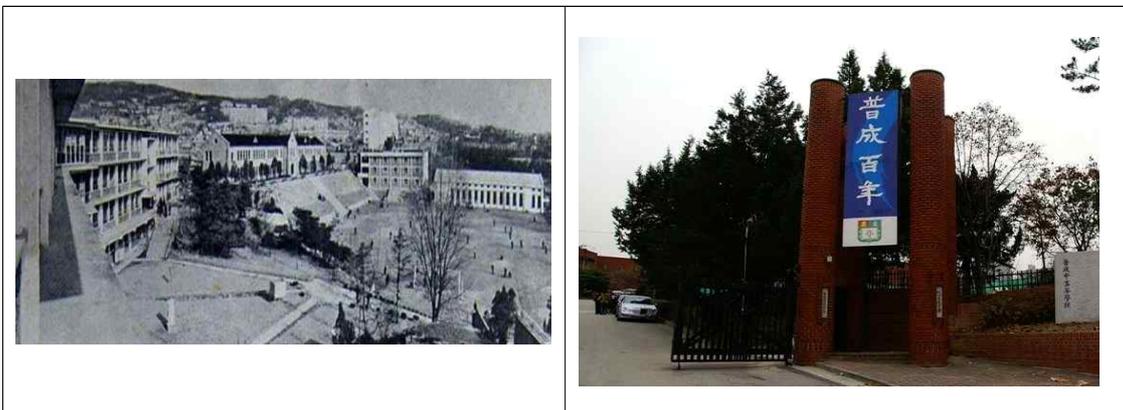
고종 6년(1869)에 약간의 수리를 거쳐 잘 유지되던 혜화문은 일제강점기에 도시 계획이라는 명목아래 1928년 들어 문루가 헐렸고, 1939년에 돈암동행 전차가 부설되면서 흥예문마저 헐렸다. 일제는 본래 북악산 산자락이 끝나고 낙산 자락이 시작되는 고갯마루에 건설되었던 혜화문 자리에 전차를 놓으면서 고개턱을 많이 깎아 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 도로를 확장하면서 더 깎아 버렸다. 결국 본래 위치에서 20미터 정도나 지반이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동소문로를 지나면서 서울 성곽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한참 위로 쳐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소문로 서울 성곽이 지나간 자리를 더욱더 현실감 없게 만드는 것은 복원된 혜화문이다. 1994년 혜화문을 복원하면서 본래 위치보다 북쪽으로 제법 떨어진 현재 자리에다 올려 놓으니 혜화문이 꼭 중국 무술영화 세트장처럼 되어 버렸다. 도성문은 고갯마루에 있어야 정상인데 언덕 위에 올려 놓으니 그렇다. 복원된 혜화문은 북쪽으로 얼마만큼 옮겨서 세운 것일까?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원경 혜화문 사진’을 빌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복원된 혜화문을 보면서 옮긴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편액도 쳐다보자. 전통적인 혜화문 편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데 반해 복원된 혜화문 편액은 현대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다. 이렇듯 편액에서조차 전통을 느낄 수 없고, 문조차 365일 닫혀 있어 성북동 주민에게 여름 날 시원한 바람 하나 주지 못하는 게 복원된 혜화문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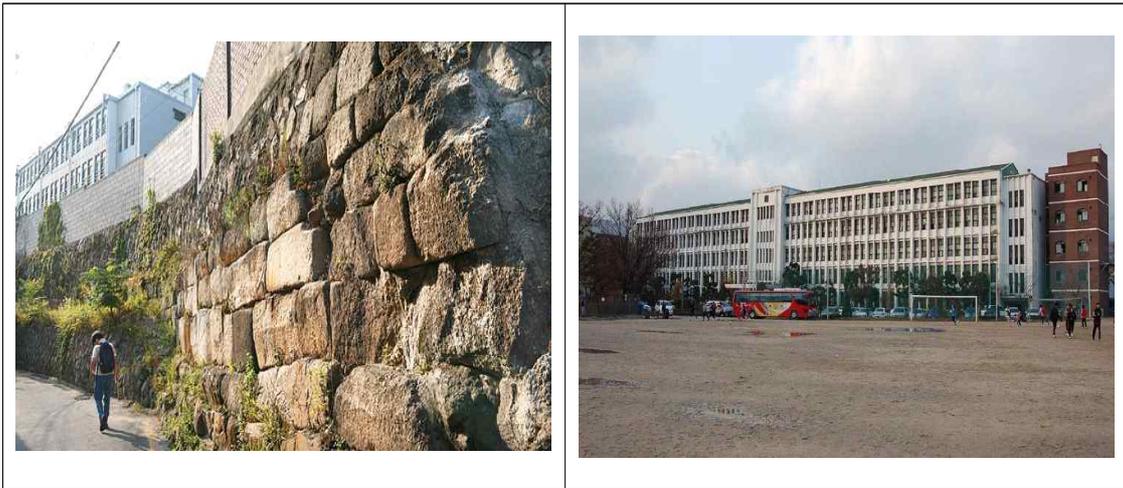
6. 학교이야기

도성 내 학교 부지 상류화 현상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고, 서울 외곽에 이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때는 경제개발에 의해 서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1960~1970년대였다. 은평구의 고등학교도 인구가 늘어나고 택지개발이 한창이던 바로 이때 산 중턱 내지 언덕 위에 집중적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 국제고 자리인 명륜동 1가 1-27번지에는 먼저 1915년에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학림이 들어왔다.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그 뒤 1927년 10월 중앙학림 자리에 불교전수학교가 2층 양옥 벽돌교사를 신축하고서 1928년 4월 30일자로 설립허가를 얻어 개교하였다. 1930년에는 불교전수학교가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 개편되었다. 이 이름으로 10년 정도 운영되다가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말기인 1944년 5월 일제의 학교 정비 계획에 따라 혜화전문학교는 강제 폐교되었다. 1945년 10월, 혜화전문학교는 해방이 되자 서둘러 개교하였다. 1946년에는 동국대학으로 승격·개편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학 본부를 지금 위치인 중구 필동 3가 26번지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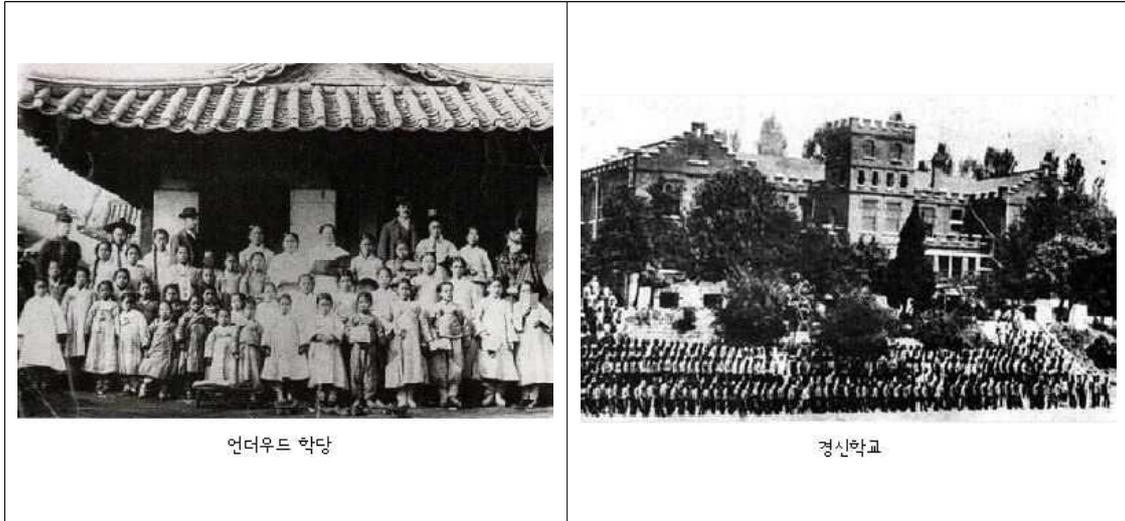
동국대학의 전신이 있던 자리는 그 후에 혜화초등학교가 들어섰다. 그 곳에서 30년을 보낸 혜화초는 다시 본래 자리로 이사하였다. 그 후 그 자리는 서울 국제고가 들어섰다. 서울국제고 옆에는 서울과학고가 있다. 서울과학고 자리는 본래 보성중고등학교 자리였다. 보성중고등학교는 이용익이 1906년 9월 현 조계사 자리인 수송동 44번지에서 사립 보성학교로 창립했다. 1914년 7월 교명을 사립 보성고등보통학교로 개칭한 보성중학교는 1927년 5월 혜화동 1번지에 교사를 준공하고 이전했다. 여기서 60년 넘게 있던 학교는 1989년 5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쪽 신교사로 이전하였다. 보성중고등학교가 이전해 가고 5개월 후 서울과학고가 개교식을 갖고 혜화동 1번지 땅에 들어섰다. 개교한 지 80년이 넘는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킬 만큼 특목고의 힘은 셌다.

서울과학고 뒷산을 달려 내려온 서울 성곽은 서울과학고 후문에서 끊긴다. 혜화동과 성북동을 잇는 소방 도로, 즉 우암로에 의해 70미터 정도가 헐려 버렸다. 우암로를 가로지르면서 이내 서울 성곽 유허를 만난다. 성곽 유허는 경신중고등학교 뒷담인 블록담 아래 기초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2~3단 정도 남아서 기초석을 이루는 유허가 50미터 정도 된다. 블록담 아래 성곽 유구가 사라지면 이내 경신중고등학교 철책담이 시작된다. 경신중고등학교 철책담에서는 유구가 아예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다.



경신중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이다. 1885년 정동 32번지에 개설된 언더우드학당이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885년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의미가 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두 교단인 감리교와 장로교의 출발이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1885년 감리교에서는 미국 선교사로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가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1885년, 아펜젤러는 근대 학교의 출발이 되는 배재학당을 개설했다. 언더우드도 뒤지지 않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재원을 충당하여 1885년 10월에 언더우드학당을 개설했다. 언더우드학당은 지금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정동 32번지에 처음 문을 열었다. 1886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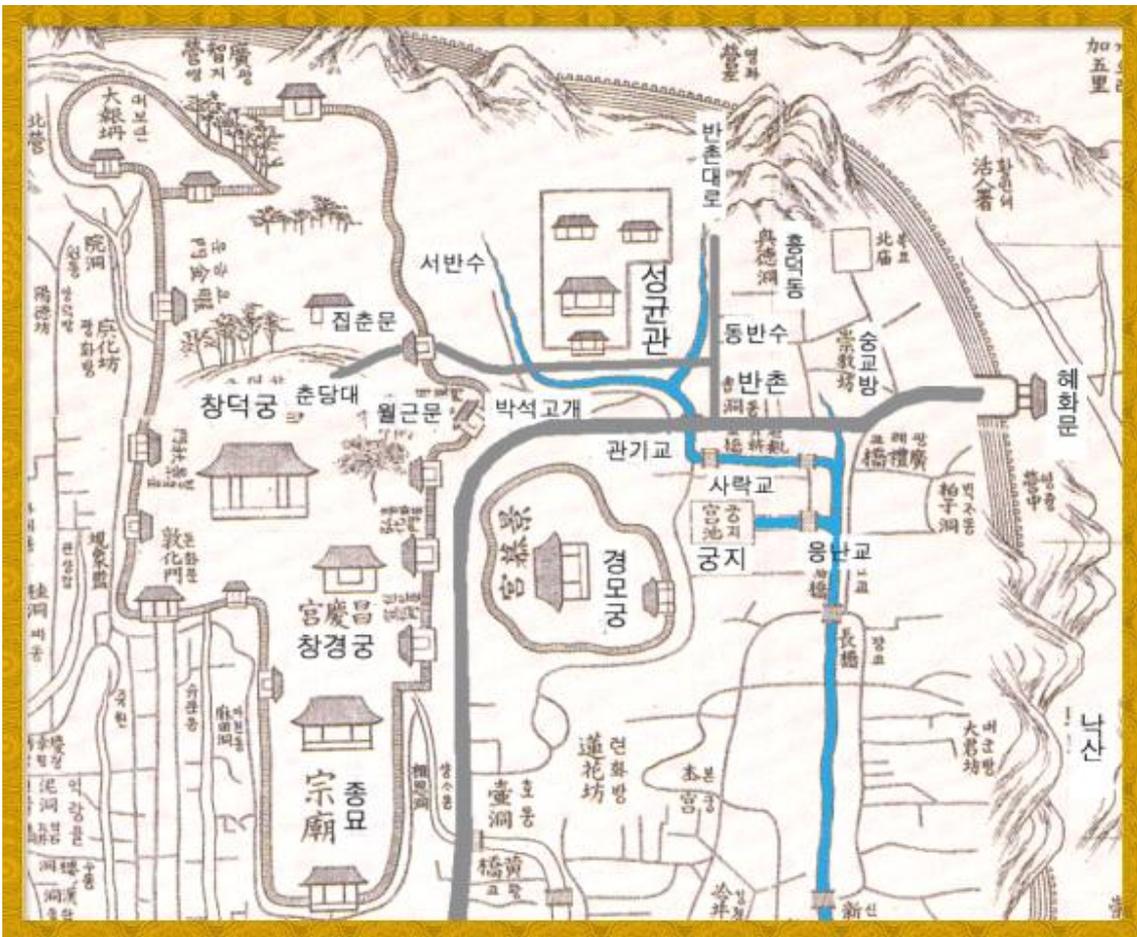
는 고종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언더우드학당은 1901년 연지동 1번지에 대지와 한옥을 매입하고 이전했다. 아펜젤러의 정동교회와 배재학당이 계속 정동을 지킨 것과 반대로 언더우드의 교회와 언더우드학당은 전부 정동을 떠났다. 교회는 새문안으로 갔고, 학당은 연지동으로 갔다. 언더우드학당은 1905년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의미에서 ‘경신(倣新)’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본관 교사도 이때 올리는데 연와 2층을 신축하여 ‘존 웰스 기념관’이라 이름을 붙였다.



1930년대 말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언더우드 학당은 연지동 교사를 방매하고, 정릉동 산 90번지에 신교지 약 6,6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신교사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2년 후 1941년 3월 15일 정릉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는데, 1952년 2월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의 실화로 학교가 반소되고 마는 불행을 당했다. 그러다 1955년 6월 현재의 혜화동 5-119번지로 다시 교사를 이전해서 지금에 이른다.

7. 성균관(成均館)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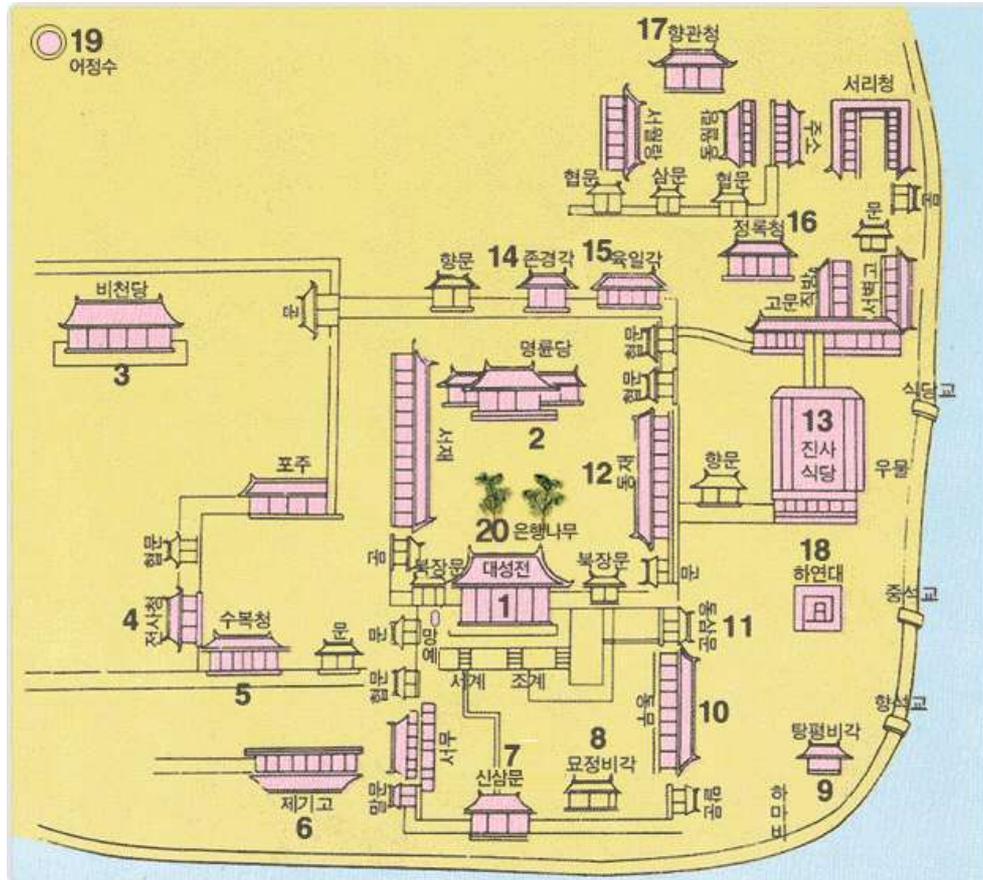
고려말과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주례 周禮』에 의하면 ‘성균’은 오제(五帝)의 학(學) 가운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음악(音樂)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大司樂)이 그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 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성균관 건물 안내도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教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

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 大成殿, 東·西廡), 유생(儒生)들이 거처하는 동·서재(東·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 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 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 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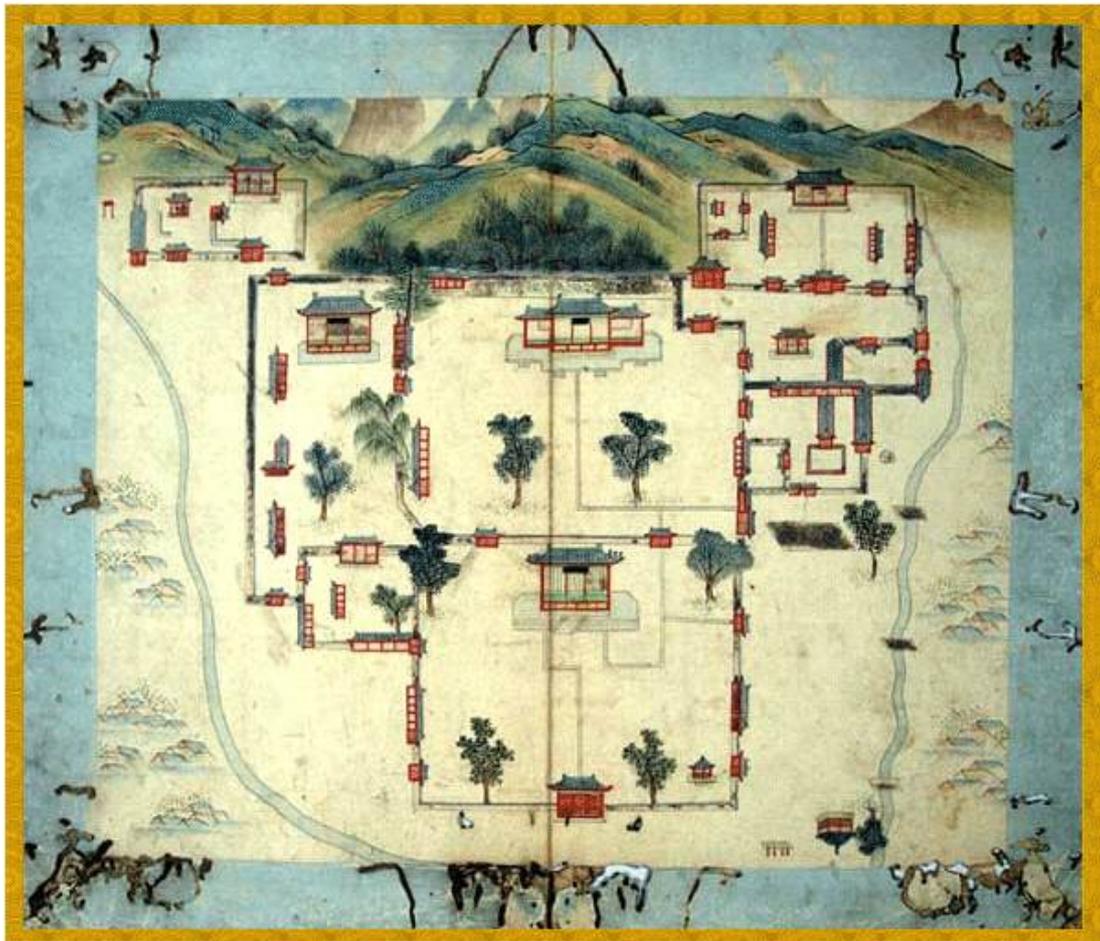


성균관 건축물 배치도 명칭

- | | |
|----------------|-----------------|
| 1 대성전(大成殿) | 11 동삼문(東三門) |
| 2 명륜당(明倫堂) | 12 동재(東齋) |
| 3 비천당(丕闡堂) | 13 진사식당(進士食堂) |
| 4 전사청(典祀廳) | 14 존경각(尊經閣) |
| 5 수복청(守僕廳) | 15 육일각(六一閣) |
| 6 제기고(祭器庫) | 16 정록청(正錄廳) |
| 7 신삼문(神三門) | 17 향관청(享官廳) |
| 8 모정비각(廟庭碑閣) | 18 하연대(下簾臺) |
| 9 탕평비각(蕩平碑閣) | 19 어정수(御井水) |
| 10 동무(東廡) | 20 은행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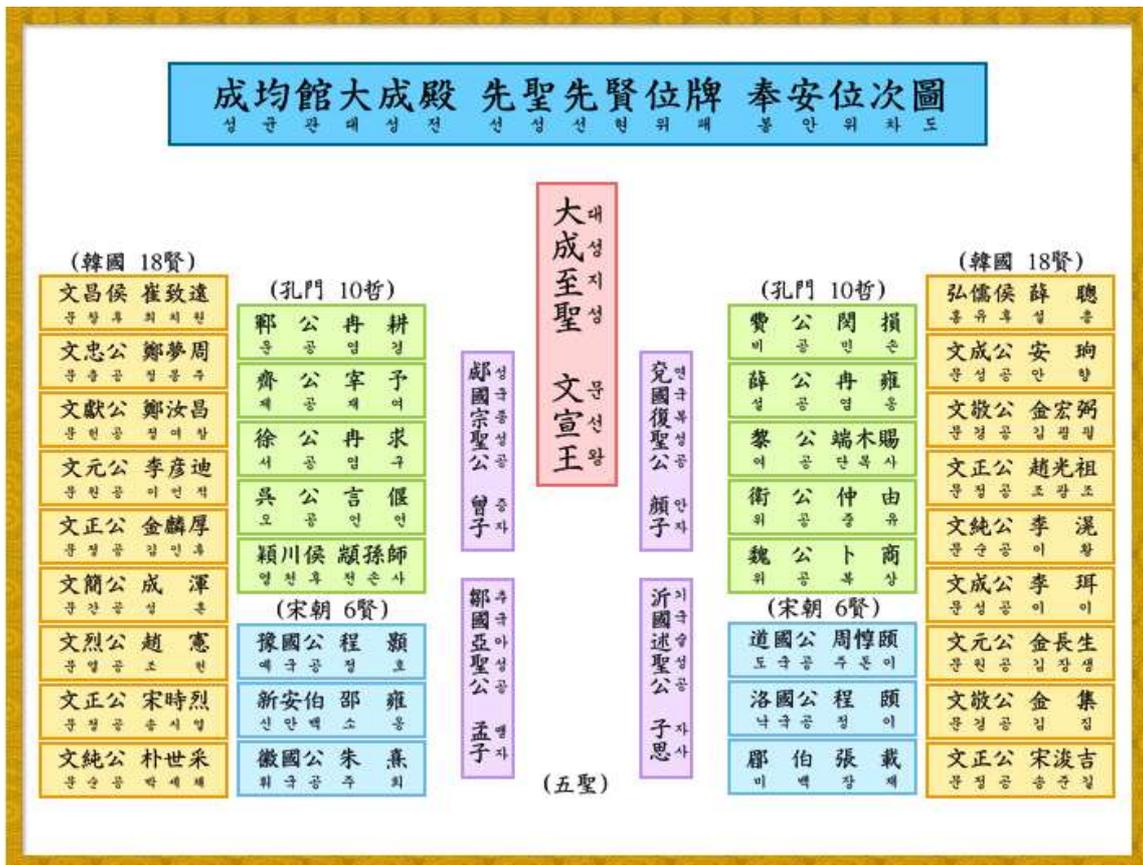
성균관의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여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나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따르면 정2품 지사(知事) 1인과 종2품 동(同)지사 2인은 겸관

(兼官)이었다. 정3품 대사성(大司成) 1인, 종3품 사성 2인, 정4품 사예(司藝) 3인, 정5품 직강(直講) 4인, 정6품 전적(典籍) 13인, 정7품 박사(博士) 3인, 정8품 학정(學正) 3인, 학유(學諭) 3인, 정9품 학록(學錄) 3인으로 교수직이 조선 초기의 22인에서 38인으로 증원되었다. 영조(英祖) 때의 『속대전 續大典』에 의하면 제주(祭酒)가 정3품관으로 설치되어 1·2품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정조(正祖)때의 『태학지 太學志』에는 지사(정2품에서 정1품까지)를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토록 하였고, 인원이 더욱 늘어났다.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 합격자에게만 한하여 부여되었다 이들은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200명이었는데 말기에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원·진사가 아니더라도 사학(四學)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으로 소학(小學)·사서(四書)를 배우고 오경(五經)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진사의 초시(初試: 漢城와 鄉試)에 합격한 자,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였다.



고지도 속의 성균관

주요 교과 과정은 사서·오경을 구재(九齋)로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과문(科文: 詩·賦·訟·策·義·疑 등)의 제술(製述)도 부과하였고, 제사(諸史)도 독서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불경(佛經)·잡류(雜流)·백가자집(百家子集)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수 방법은 먼저 구재 가운데서 대학재(大學齋)에 들어가 『대학 大學』을 배웠다. 그것을 마친 다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관원 1명과 대간(臺諫: 司憲府·司諫院)의 관원 각각 1명씩을 성균관에 파견하여 성균관의 교관과 함께 학생에게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논어재(論語齋)에 올리고, 통하지 못한 자는 통할 때까지 대학재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어재에서 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시재(詩齋)·서재(書齋)·역재(易齋)로 차례차례 진재(進齋)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서 오경에 통한 자는 명부에 기재하고 성균관에 보관하였다가 식년(式年)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여 문과초시(文科初試)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분재제도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시대에 따라서 원칙으로만 지켜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시험 과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 경서(經書)와 사장(詞章)의 학습 비중이 이에 맞추어 달라진 것이다. 또 『실록 實錄』의 기록에 나타난 교수의 한 방법은, 즉 태종 13년(1413) 대사성 권우(權遇)의 상서로 정부가 결의한 것인데, 성균관 학생은 1개월 가운데 20일은 경서를 읽고, 4일간은 배운 것을 고강(考講)하고, 6일간은 과거의 문장인 제술을 실시하여 월말에 그 달에 배운 경서의 다소(多少)와 고강 및 제술의 분수(分數: 9등급의 점수)를 기록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식년에 이르러 분수를 총계하여 상등 5명 내지 10명을 ‘대성(大成)’이라 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전계(轉啓)하여 관시(館試: 문과 초시)를 면제하고 바로 회시(會試: 覆試)를 보게 하였다. 그 이하는 모두 관시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학에서 승보(升補)된 기재생은 소성(小成)·대성을 막론하고 모두 생원시를 보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후에 부분적인 변동은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성균관의 교수방법에 있어서 한 표준이 되었다. 또 교수와 학생사이에 질의응답식의 교수 방식과 개별 지도에 치중하고 교수 1인당 학생이 10인을 넘지 않았다.



성균관에 배향된 인물들

『태학지』에는 유생들의 일과 및 지켜야 할 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생들은 매월 초 1일 관대(冠帶)를 갖추고 문묘에 나아가 4배례(拜禮)를 행한다. 일과는 매일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여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안정하게 밝아서 책을 읽는다.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 서로 마주앉아 식사를 마치고 퇴장한다. 식당에 참여하는 점수를 원점(圖點)이라 하는데 아침·저녁을 합하여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출석 점수로서 300점을 취득하여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다음에 교수들이 명륜당에 정좌하고 북소리가 나면 입정(入庭)하여 상읍례(相揖禮)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 재 앞으로 가서 서로 절하고 인사를 교환한다. 유생이 교수에게 나아가 일강(日講)을 청하면 상재와 하재에서 각각 1명씩 뽑아 읽는 책을 상대로 강을 행한다. 북소리가 두 번 나면 모든 유생은 읽는 책을 가지고 사장(師長) 앞에 나아가 배운 것을 논란(論難)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새 것을 배운다. 이 때 많이 배우는 것을 힘쓰지 않고 정밀하게 연찬하는 데에 힘쓴다. 과목당 독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1개월, 『중용』은 2개월, 『논어』·『맹자』는 각 4개월, 『시경』·『서경』·『춘추』는 각 5

개월, 『주역』·『예기』는 각 7개월로 하였다. 독서할 때는 글 뜻을 명백히 이해하여 응용에 통달하도록 하였고 장구(章句)에 얽매어 글의 뜻을 헤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후기로 갈수록 지켜지지 않고 주자장구(朱子章句)에 얽매이는 태도로 경직화되었다. 글씨는 해서(楷書)를 원칙으로 하고, 성현을 숭상하지 않는 언동을 하거나 조정을 비방하면 처벌 대상이 되었다. 상론(商論)·재뢰(財賂), 그리고 주색(酒色)을 말하면 안 되고, 시세에 따라 권세에 아부하여 벼슬길을 찾아도 안되었다. 또한 유생들은 오륜(五倫)을 범하여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되며, 윗사람을 능욕하거나 사치하여도 안 되고 교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처벌되었다 유생들의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은 재(齋)였다. 상재생은 하재생이 과실이 있으면 벌을 주기도 하였다. 벌의 종류는 식손(食損: 식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輕重에 따라 날수를 달리함)과 출재(黜齋: 재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퇴학과 같음)가 있어서 엄한 편이었다. 자치 기구로 재회(齋會)가 있었다. 재회의 임원으로 장의(掌議)·색장(色掌)·당장(堂長)·조사(曹司) 등이 있었다. 당장은 회의 석상에서 선출되는 임시 의장의 구실을 하였고 조사는 좌중에서 최연소자로 뽑아 서기 구실을 하였다. 장의는 회장이고 동·서재 각 1명으로 2명, 색장은 4명으로 식당에서의 검찰(檢察)을 맡았다. 성균관의 대내적인 문제는 대개 재회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외적인 문제 가운데서 특히 조정의 부당한 처사나 정치에 대해서는 유소(儒疏)나 권당(捲堂)으로 맞섰다. 유소는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하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고 이것으로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일종의 수업거부인 권당으로 맞섰으며, 권당으로도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공관(空館)을 하였다. 공관(空館)은 유생들이 문묘의 신삼문(神三門) 밖으로 네 번 절을 하고 일제히 성균관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권당의 횃수는 중종때 1, 명종 때 4, 광해군 때 2, 인조 때 2, 효종 때 1, 현종 때 2, 숙종 때 16, 경종 때 2, 영조 때 18, 정조 때 16, 순조 때 14, 헌종 때 4, 철종 때 5번 있었다. 초기에는 유학의 근본 이념에 맞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행하여졌지만 후기에 갈수록 우세한 당파(서인, 특히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 여론의 데모화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장의가 노론 1인, 소론 1인이 뽑혔던 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정책 결정이나 인사 문제, 문묘의 승무(陞廡)문제 등에 유소와 권당의 영향은 크게 작용하였고, 관리들보다는 비교적 순수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명륜당 전경

조선 초에 완비를 본 성균관의 시설은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버리고 선조 34년(1601)에 재건에 착수하여 6년이 지난 후대 체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 후 말기의 고종 때까지 새로운 시설과 개수 확장 사업을 계속하였다.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서울의 사학(四學)을 제외한 지방의 향교(鄕校)도 그 내용이 같았다. 건물의 규모는 96칸(間)이다. 문묘에서 향사(享祀)되는 인물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달랐고 조선시대에서도 전·후기가 다르다.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와 4성(四聖: 顔子·曾子·子思子·孟子)과 공문십철(孔門十哲), 그리고 송(宋)나라 6현(賢)을 모셨고, 동·서무(東·西廡)에는 주·한(漢)·진(晉)·당(唐)·원(元)·송나라 94위(位)와 우리나라 신라·고려·조선 18위를 봉안하였다. 해방뒤에 무의 94위는 출향(黜享)하고 우리나라 18위를 대성전에 옮겨서 봉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문묘에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뒤 명륜당에서 과거를 치루는 알성문과(謁聖文科)도 있었다. 명륜당은 대성전의 북쪽에 있고 좌우에 협실(夾室)이 있는데 남향으로 18칸[間]이다. 동·서재는 각 18칸으로 기숙사이며, 육일각(六一閣)은 유학 교육에서 교양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육예(六藝: 禮·樂·射·御·書·數) 가운데서 활쏘기[射]에 관련된 기구를 보관한 곳이다. 이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전한 단련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 존경각·비천당을 비롯하여 진사 식당(進士食堂)·정록청(正錄廳)·향관청·양현고(養賢庫) 등 넓은 교육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양현고는 성균관 학생의 식사와 등유(燈油)·돛자리[(鋪席)] 등 여러 가지 교육 기구와 석전

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려 예종 14년(1119)에 안유(安裕)의 건의로 창설한 일종의 장학 기관이다. 그 재원은 학전(學田)과 노비(奴婢)에 있었다. 그 규모는 태종 때 1,000결(結 : 1결은 약 3,000평. 토지의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의 토지와 300구(口)의 노비가 있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감이 있었다. 현재에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는 양현재(養賢齋)를 그대로 두고 교육과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성전 전경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활동(義兵活動)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

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일어·일본사·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초대 학장 및 총장에는 전통 유림으로서 일제에 대항하였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취임하였다.



존경각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 특히,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예절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09
심정보,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녹색연합, 『서울성곽 걷기여행』, 터치아트, 2010
홍기원, 『성곽을 거닐며 역사를 읽다』, 살림, 2011
김도형, 『순성의 즐거움』, 효형출판, 2011
박계형, 『서울 성곽의 역사』, 조은, 2008
나각순, 『한양 도성』, 주니어김영사, 2012
이영근, 『서울 올레길, 육백년 도성길』, 중앙북스, 2010
『韓國의 都城』 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
집, 2010.

2. 논문

- 이석희, 「서울 성곽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영모, 「조선시대 성곽의 축성법 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이상희, 「조선의 성곽」,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기타

- 성균관 홈페이지 <http://www.skkok.com/>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aks/Default.aspx>